朝鮮日報

本紙八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論說

注目할 勞農露西亞의 對中策

一

우리는 昨日에 張作霖의 地位를 論하고 昨日에 또 中國民의 階段的成功을 論하엿섯다 그러하엿지마는 또한 中國問題를 論하게되엿스니 우리가 그만큼 中國問題에 對한 興味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世界의 變動에 對하야 不絶히 注意하여 왓다 우리 自體가 變易을 조하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境遇에 잇는 故로 世態의 轉換에 對하야 恒常 더 만흔 興味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直接關係가 업고 또는 죄은 것이면 우리가 別로 問題삼을 必要가 업는 것이지마는 中國의 變動과 가튼 것은 우리에게 關係되는 바가 만히 잇는 故로 그 趨勢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아니 할 수 업는 것이다

二

우리民族의 解放을 達成하는 條件이 第一次的으로 우리 自體의 訓鍊及發展에 잇는 것은 勿論이지마는 恒常外勢 즉 世界의 趨勢에 잘 다고 나가야만 事半功倍할 것을 맛는 바이다 그런데 中國의 形勢와 日本의 形勢가 가장 만히 우리에게 影響을 줄 것인 故로 그와 步調를 될 수 잇는 대로 틀리지 아니하게 마추어 나갈 必要가 잇는 것이다 現下世界에는 反動的 氣運이 매우 濃厚함을 보지 아니할 수 업스나 東方의 動搖不安이 恒常 우리에게 多少 興味잇는 材料를 供給하는 것이고 또 中國의 形勢와 日本의 形勢가 앞으로 發展되여 나갈 可能性이 만히 잇다는 것을 할바이 잇다 日本無產階級의 勢力의 擡頭는 우리가 關與치 못 생각케 한다 勞働運動의 中心이 英國으로부터 獨逸로 獨逸로부터 露西亞로 移轉되여 왓섯는 내지는 日本이 또한 先進諸國과 가튼 그 以上으로 活潑한 運動을 보이고 잇다

三

日本에 잇서서 新興勢力이 完全히 社會를 支配하게 되고 中國에 잇서서 또한 그러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極東의 平和라는 것을 참으로 말할 수 잇는 것이다 그가 오는 데 잇서서 朝鮮民族이 매우 重要한 活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單純한 우리의 希望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잇다 極東의 三大勢力은 露中日이니 이 세 가지 勢力이 必然的으로 緩衝的 地帶를 要求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朝鮮과 滿洲는 此等의 三大勢力으로부터 分離하여 둘 必要가 잇는 것이니 滿洲는 朝鮮과 매우 歷史的 關係가 깁흔 者이요 또 朝鮮사람의 移住居留한 者가 임의 數百萬에 達하고 또 今後도 繼續하야 그러할 形勢에 잇슴으로 朝鮮과 滿洲가 一體가 되여서 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잇는 것이다

四

그런데 中國形勢의 急轉은 우리로 하여금 極東의 形勢에 눈을 번득 뜨고 잇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하는 바 잇다 지난 三十一日의 北京發은 「모스크바」政府가 南方政府의 承認을 準備하는 中인데 그 時機는 南軍이 上海를 占領한 直後로 豫定하고 駐中大使는 有名한 革命의 元勳이요 赤衛軍의 組織者인 「트로츠키」氏나 될 것이라 하고 또 同日의 哈爾賓發은 「카라한」氏가 近日에 「모스크바」를 떠나서 海參威를 經由하야 바로 上海로 武昌에 赴任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로서 中國의 形勢가 一層急速한 變化를 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一日의 莫斯科發은 外交委員長 「보라긴」氏가 中國에 關한 特別한 年頭聲明에 中國을 露國通信社에 주어서 中國을 露國과 同等으로 待遇할 것이라는 것을 聲明하엿다는 것을 傳하여 왓다 英國의 態度가 이미 累述한 바와 갓고 米國의 態度가 그러하고 또 露西亞의 態度가 이와 가트니 中國의 革命的 勢力인 南方政府의 承認이 在邇하다는 것을 알 수 잇다 그러나 또 그 中에 잇서서 勞農露西亞의 對中策이 그것을 助長한 바 만하엿섯다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줄 안다

會審衙門引渡 雙方의 交涉終結

公文書의 交換은 三日

(上海三十一日發) 一月一日부터 中國側에 引渡하기로 決定한 上海共同租界의 會審衙門에 對하야 今日當地領事團과 中國當局과의 間에 모든 交涉이 終結되엿다 公文書의 交換은 아마 一月三日이 되리라더라

鄭信間戰鬪開始

靳軍의 武裝을 解除타가

(北京三十日電) 二十七日夜間에 鄭州信陽間에서 戰爭이 開始되엿다는 消息이 北京城中에 傳布되엿는데 그 原因은 吳佩孚가 寇英傑 田維勤兩氏에게 命하야 靳雲鶚軍을 包圍하고 武裝을 解除식히려 함으로 因함이라더라

英提案大論戰

本國에 請訓하고 散會

二十八日外交團會議後聞

(北京一日發) 舊臘二十八日外交團會議에서 上海會審衙門의 還附案을 決定한 後에 이어서 英國公使 「람프손」氏의 發言으로 關稅附加稅實施의 原案을 討議하는데 英使는 英國原案은 中國의 紛糾를 解決식히는 同時에 列國의 利益을 擁護하는 不二法門이라 하야 堅持함을 마지 안코 米日佛의 三國公使도 또한 前者의 態度를 고치지 아니하야 서로 論爭이 일어낫는데

米佛 兩國公使는 英國案대로 곳 二分五厘附加稅를 許諾하야 地方實力派로 하야금 自由支配케 한다 하면 南方政府를 承認하는 前提가 되는 것이니 반듯이 主義上의 反對가 된다느니 보다도 時機가 아즉 成熟되지 아니하얏다 漫然히 同意하야다가 中國의 紛糾만 더하고 進退兩難하게 되면 도리어 威信만 退損할가 두려우니 찰하리 愼重한 態度를 固取하야 中國의 時局이 엇더케 發展되는 것을 觀望하는 것만 갓지 못하다 하고

日本 公使芳澤氏는 英國原案이 日本의 對中特殊利益에 妨害가 甚多하다 하야 反對의 態度가 자못 猛烈하얏는데 그 會席에서 辯論하는 가운데에 中國의 方面을 主한 것을 綜合해 보면 大體 論點으로 난 위엇스니

一、英案대로 二五附加稅를 實施하야 地方實力派가 支配하게 되면 中國의 內亂을 助長하야 終熄될 날이 업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업다는 것

二、英案대로 하면 二五附加稅를 許諾하더래도 足히 關稅의 自主를 要求하는 中國民의 希望을 滿足케 할 것이 업다는 것

그리하야 日本側은 關稅會議中의 宣言精神에 依하야 華盛頓會議의 二五附加稅를 許可하기 前에 오히려 決定할 事項 즉 稅率의 差別, 釐金稅의 存廢, 互惠條約의 問題와 가튼 것을 解決한 뒤에 中國의 關稅自主를 承認할 것이라 하고 其他公使의 發言도 잇섯스나 모다 本國政府에 請訓하기로 하고 散會하얏더라

伊首相回答起草

(羅馬一日發) 伊太利首相兼外相 「뭇소리니」氏는 中國問題에 關한 英吉利政府의 覺書에 對하야 回答을 起草中이라더라

陳儀南京護送

部下改編

(上海一日發) 陳儀氏는 去二十七日에 孫軍에게 南京에 護送되고 그 部下第一師는 周鳳岐軍隊로 改編되엿더라

陳儀辭職聽許

警務處長으로

(二十八日上海電) 陳儀氏가 南京에서 浙江省長을 辭任하엿는데 孫傳芳氏는 그를 聽許하엿다 陳氏의 衛隊와 隨員은 杭州로 向하엿다 하며 杭州警務處長錢某도 辭免되엇다더라

南方政府는 排英親日主義?

大體方針은 決定될듯

(漢口二十九日發) 移轉後의 國民政府의 對外政策은 아직 具體的으로 決定되지 아니하엿다 譚延闓以下等首腦의 一行이 廣東에서 南昌에 到着되기를 기다리어 同地에서 蔣介石氏等과 今年內에 重要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라는 것은 이미 報導하얏거니와 右會議에서 大體方針도 決定되겟고 總司令部의 政治部主任 鄧演達氏도 數日前 同地에 向하엿다 國民政府에서 勢力擴大와 同時에 漸次實際的으로 되어 왓슴은 明白한데 英日兩國을 敵으로 함은 不利하다 하야 어데까지든지 英國을 抵制하고 日本과 接近政策을 取하고 잇슴은 旣定方針으로 볼 수 잇다 英國의 對中態度가 一變되엿슴에 不拘하고 黨者의 對中觀察에 對하야도 二分五厘五分의 附加稅提議와 如한 것은 反革命派를 援助함이라 하야 몹시 反感을 사게 하고 英黨는 몹이 激烈하여 집엇이다 二十六日武昌과 漢口에서 反英大會가 開催되어 氣勢는 놉히 엇고 一月十一日부터는 對英經濟絶交의 名目下에 「보이콧트」를 實行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計劃을 進行中이라더라

周陳兩軍交戰

富陽上流에 砲聲轟轟

(上海一日發) 陳儀、周鳳岐의 一三師가 聯合하야 蕭山에서 防守하다가 三師는 富陽上流에서 江을 건너서 聯絡을 取하는데 砲聲이 轟轟한 것은 周陳兩軍이 交戰하는 듯하며 孫軍은 錢塘江으로 第一防禦線을 삼고 江을 건너 奪擊코저 하나 아즉 外지 成功치 못한 것은 中流에서 陣軍의 擊退를 맛난 外닭이라 한다 周鳳岐가 南軍의 軍長이 된 뒤로 陳儀와 孫傳芳의 關係는 進退兩難에 싸졋고 陳의 部下는 모다 南軍에 歸向하얏더라

張作霖親訪兩老

(北京三十一日發) 張作霖은 前日에 또 北京에 돌어가면 京中元老는 반듯이 親訪하더니 今番에도 趙爾巽、王士珍의 兩元老의 집에 가서 寒暄을 親問하얏다더라

鄭謙辭職無影響

(北京一日電) 奉天系文治派의 互頭로 指目되든 鄭謙氏가 張作霖氏入京의 前夜 즉 二十六日夜에 突然히 安國軍總司令部總務處長의 職을 辭免하고 말엇는데 그 原因은 政見의 不合으로 因함이라 한다 鄭氏는 文治派임으로 그 去就는 政局에 對하여는 別로 重大影響이 업겟고 그의 後任으로는 秘書譚國恒이 繼任되엇다 하며 外間에 鄭의 免職說이 傳하나 此는 誤傳이라더라

唐袁間衝突將起?

周鰲山이 常德에 先行

(長沙三十日發) 現在湖南의 形勢는 雲南軍이 그 西部의 三十餘縣을 占據하고 民財兩政이 모다 그 管轄에 들어갓는데 이는 後도 洪江에 財政統籌處를 設置하고 澧州에 財政委員會를 設立하야 籌餉事宜를 專辦하니 地方人民은 誅求에 堪耐하지 못하야 當政府에 制止策을 要請하얏다 그리한中에 袁氏는 또 唐生智氏에 對하야 湖南西部의 各縣은 雲南軍의 管轄에 暫屬하엿다가 戰事가 結末난 뒤에 다시 歸還하기를 電請하얏슴으로 唐氏는 大怒하야 電文을 엉덩 던지니 이로부터 湖南西部의 問題가 湖北西部의 問題와 맛이 어울어 나게 되엿다 그리하야 康氏는 湖北西部의 荊州宜昌等地가 麻煩되면 곳 湖南에 돌아가기로 하고 먼저 湘西綏靖處長周鰲山으로 하야금 常德에 가서 一切事宜를 處理케 하니 周氏는 곳 常德에 出發하엿더라

周氏大談和平

(長沙三十日電) 別項과 如히 常德에 先往하는 周鰲山氏는 某報記者에게 左와 如히 말하엿더라 此行의 目的은 和平手腕으로 湘西一帶는 湘政府의 管下에 統一하겟다 이 職務이 綏靖이나 實은 交涉의 事務를 處理할 셈이다 첫재 雲南軍各首領으로부터 交涉하야 湘西의 政權을 索還하고 또 雲南軍도 한가지 北伐에 參加하야 湖北의 西方으로부터 陝西河南에 들어가든지 或은 湖南으로부터 江西에 들어가든지 한가지 南下하는 奉魯軍을 防禦케 하라 하엿더라

前日活佛 今日劇場主

大華街經營

(東京電) 二十四日滿鐵鄭家屯公所로부터 東京支社에 對하야 蒙古活佛의 大華街經營이라는 情報가 到着되엿다 右에 依하면 「모리스」廟의 集寧寺活佛 「아와드바라노」(四〇)氏는 今回通遼市街의 南劇場이라는 大華街를 奉天銀十三萬元을 주고 貯蓄에서 買收하엿는데 右華街는 三千六百五十坪의 敷地에 大劇場、大沐浴場及大料理店이 잇고 다시 遊廓、妓女房屋等 大小二百餘軒의 遊樂이 通하야 잇다 現在의 蒙古는 喇嘛

蔣氏攻浙策

積極的前進

(上海一日發) 浙江省內에 들어간 南軍은 蔣介石의 直轄인 劉峙方守備가 되어 二萬五千의 軍隊를 統率하고 江西、浙江의 省境을 防備하며 蔣氏의 浙江에 進攻할 計劃은 形勢가 變遷되는 대로 積極的手段을 다하야 前進할 터인데 攻浙先鋒隊는 二十八日夕에 突然히 錢塘江을 건너서 北岸에 잇는 王森軍과 交戰하고 또 錢塘江을 지난 孫軍第十五旅는 富陽、聞家堰地方에서 南軍과 交戰하엿스나 戰火는 그다지 猛烈치 아니하얏더라

米國政府의 二大外交政策

全然失敗、和平難望

(華盛頓三十一日發) 米國國務省은 新年에 際하야 二個의 對外問題로 크게 憂慮하고 잇다 一은 墨西哥의 土地油田法이요 他는 中米 「니카라가」의 革命動亂이다 墨西哥의 油田土地法은 屢次米國政府의 抗議도 無効가 되고 一月一日夜半부터 實施되게 되어 困難中에 잇는 米墨關係를 더욱 困難케 하고 「니카라가」에서는 米國政府의 承認한 大統領 「데이아」氏는 이제 革命軍의 武力에 壓迫되어 地位가 危機에 瀕하엿슴으로 右二問題는 外交上의 手段으로는 平和解決을 보기 不可能하게 되엿슴으로 서라더라

農露不承認方針

何等의 變化가 업다고

(華盛頓卅一日發) 얼마 前부터 米政府는 勞農露國政府承認問題에 對하야 勞農政府當局과 交涉中이라는 傳說이 잇섯는데 國務省은 今日此報道를 否認하고 米政府의 勞農政府不承認方針은 從前과 些毫도 變化되지 아니하엿다고 聲明하엿더라

政局推移와

議會再開後 貴族院意嚮

(東京電) 議會再開後 政局이 如何히 推移할가에 對하야 貴族院各派의 大體意嚮을 綜合하면 今後政局은 解散을 必定이라고 하는 者와 不然한 者의 두 가지로 觀測되나 即解散을 必定으로 하는 論者의 意見에 依하면 政本의 提携는 三問題에 極限되어 出現하얏스나 議會가 開會되자 常任委員長의 野黨獨占이 一擧에 行하게 되엇슴으로 政本提携의 一條件인 不景氣回復策은 具體化하랴고 豫算案의 編成을 다시 하게고 其結果政府의 不信任을 表示하게 될는지도 未知이다 또한 其結果는 議會의 解散을 避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看做한다 此에 反하야 非解散論者는 現內閣이 御大喪儀를 無事히 遂行하려는 希望을 가지고 잇는 것은 明瞭함으로 本議會再開劈頭에 在野黨으로부터 政府不信任의 措置에 出할 時에는 議會의 停會를 奏請하야 如何間 御大喪儀를 無事히 지나게 할 터이다 萬若豫定대로 御大葬을 거리엄업시 마친 後에는 政局을 圓滿히 推移식힐 道理가 생기면 엇드든 有利한 方策이 업고도 할 수 업다 又最近上院一部에 熱心으로 解散阻止를 하는 運動이 잇슴은 숨길 수 업는 事實이라고 하더라

日人對中實業에 係爭問題勃發

北伐軍의 勢力增加로

上海日人商業會頭渡東

(東京電) 北伐軍의 勢力增加는 其進捗하는 王黃와 露國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關係上 資本家勞働者間에 各種의 係爭問題를 誘致하게 되다가 現在는 조곰 小康을 得하게 되엇스나 罷業分子를 中心으로 한 日華實業協會에서는 現下中國政局의 推移는 日本投資上에 자못 重大한 關係가 잇다 하야 再三會合研究하여 오던 바 數日前 上海商業會議所는 特히 會頭田邊氏를 派遣 東京에 現在中國政局의 情勢는 協議에 報告케 하고 同氏는 此情報를 大阪對中實業家에게 報告하려고 下阪하엿는데 다시 東京에 赴하야 協會와 交涉後 此重大案件을 研究調査하여 政府方面에도 意見을 具陳할 터이더라

丁卯胡亂史論(下)

文一平

六、後金勃興의 原因

後金人이 아무리 勇壯하고 또 그 指導者가 아무리 英傑할지라도 國家的으로 勃興하는 途程에 잇서서 그리 큰 障碍와 困難 또는 危險을 遭遇하지 아니하엿슴은 確實히 一大時運을 만난 것이니 卽當時東方形勢가 壬辰亂後에 一變하여 朝鮮은 몹시 疲弊하고 明國은 더욱 衰頹하엿슴으로 新勢力의 擡頭에 對하여 가장 便利한 機會를 준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그 地理上便宜를 包含하여서 考察치 아니할 수 업스니 그는 自然의 約束을 엇기고 歷史의 原則을 어기어 大陸의 支配權을 掌握하려 하는 島國의 比가 아님으로 도서 「사무라이」의 그 七年血戰의 結果가 一朝에 도라감을 免치 못하엿스되 後金의 그 謹默的 步武는 着着成功하여 傍近諸部를 削平하고 먼저 蒙古에 馬首를 轉하여 畢竟 中原에 號令하게 된 것이다

七、今昔의 感慨

近世東洋史上의 大勢力으로서 그 勃興하는 勢頭에 잇서서 干戈를 가지고 前後三回(戊午役 丁卯役 丙子役)이나 朝鮮과 우악스럽게 衝突하든 金人이 그 後에 大淸帝國을 建設하고 乾隆時代에 黃金時代를 現出하여 그 文化의 隆盛함이 漢唐을 凌駕하얏지만 盛者는 반드시 衰하게 되나니 人類社會의 그 永久한 生命으로 보면 消長興廢의 現象이 瞬間에 轉變하는 것이 아니냐 아아? 「칼타고」의 滅亡을 悲歎하는 「쓰키피오」는 羅馬帝國은 그 悲歎가 끈치지 못하여서 一朝北狄의 손에 沒落의 悲運을 보게 되고 가터 入關한 貴人의 紅樓夢이 깨지 못하여서 愛親覺羅氏의 三百年霸業이 一流花로 사라진 오늘날에 잇서서 東方島國의 「사무라이」들이 또다시 文祿慶長의 꿈을 어 中島를 보다 다리노하며 中原을 窺覷하며 北方日本人의 鐵蹄는 大陸風雲에 出沒함을 보게 되니 歷史는 거의 類似한 形式으로 反覆하나다 다만 그 놀날 世界的으로 舞臺가 擴大된 이만큼 그 內容도 퍽 複雜하여 單純하던 過去史實로서 未來를 律할 수 업스되 平心靜氣하고 東方國際變局을 살펴보면 今後 그 形勢의 推移方向을 逆睹하기 어렵지 아니하나 (完)

人事消息

▲「포-소ㄴ-비」氏(英國伯爵) 四日午後七時京城驛着列車로 入京

▲森岡(軍司令官) 二日午後六時五十一分龍山驛着列車로 歸任

八面鋒

○米國政府는 墨西哥油田과 「니카라가」內亂에 對한 二大外交政策이 全然失敗되엇다고

○약이 가는 것이 어린아이도 어른 잘 말을 듯지 안커든 名色이 한 나라인데 그러케 하는 이들을 것인가 過去의 政策을 그대로 쓰다는 나라는 보다 더 딱켓지

○蒙古活佛은 劇場兼料理業을 經營한다든가 그 劇場은 極樂觀이라 하고 그 料理는 涅槃料理라 하면 엇더할가

○張作霖은 元老를 親問한다고 古代賢君의 敬老風이 잇군

○貴族院는 議會가 再開한 뒤에 政局의 推移를 보아서 議會의 解散을 阻止할 道理만 잇스면 그 方針을 取하겟다고 아즉 決定見인 模樣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tay, Jan. 4th, 1927.

LET US FACE THE NEW YEAR WITH A SMILE

BY PHILIP JAISOHN

If all elementary text books are written in our Unmun with a definite rule for spelling and spacing and a compulsory education law for children below sixteen years old, I believe in three years every child over eight years old will be able to read and write the easy elementary literature, the knid that they ought to know at their age. With the foundation of the elementary education as a starter many of them will gradually aquire higher knowledge by going to the secondary and technical schols. Inside of ten years there will be at least four million young men and women who have good foundation in themselves to play their part in the regeneration of the race. Korea can be made a world renown health resort, if the ordinary law of sanitation is observed by the masses. There is no excuse in this age to have an epidemic of any disease among the communities, if they are inhabited by civilized people. Stamp out first small pox, typhoid fever, diphtheria, tuberculosis, and syphilis the health of the people will greatly improve and the percentage of mortality will be markedly reduced. All of these changes can be done if the people all agree to make the charges.

It is absolutely within their power to do so. If they do not some body other than their own will compel them to make the change and the compulsion is generally accompanied with harshness, humiliation, and at times persecution. Surely our people will not give any one a chance to compel them to be clean and hygienic. They will be clean and hygienic on their own volution and on their own initiative.

京城

京城府禮智洞二十五番地 內科、外科、花柳病科專門 濟衆院 電話光一一六四番 私書函光化門十一號

爲我父老兄弟姉妹 在北米華盛頓府 金鉉九 002244

京城鍾路四丁目五十一番地 綢緞布木商 方泰卿 電話光化門二三八番 振替口座京城四九六五番

京城鍾路三丁目十三番地 築產木工所 主 朴準浩 電話光化門九六四番 振替口座京城一〇三四七番

京城鍾路二丁目二十五番地 梨花洋靴店

京城鍾路二丁目九番地 世昌洋靴店 主 梁世鎭 電話光一〇七三 振替京城七〇四八番

京城鍾路二丁目九番地中央基督敎青年會下階 大昌洋服店 主 朴容熙 電話光化門一五〇二番

京城鍾路三丁目二八番地 永昌號貨物廛 電話光化門一二七八番

京城中林洞一六〇番地 萬世고무工業所 갈건고무신 萬世고무 主 李萬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六大番地 金光堂時計舖 主 李相哲

京城府堅志洞七 平和書館 圖書出版 文房具 大正十六年用日記 當用日記 都賣

京城府仁寺洞一七九番地 運動具 洋樂器 舶來空氣銃 直輸入 都賣小賣 琴喜樂器店 電話光化門一六三七番

京城府鍾路二丁目二〇 新舊書籍 出版發行 都賣散賣 德興書林 電話光化門三九〇一番

京城鍾路二丁目 金物商 吉川金物支店 電話光化門三八八番 振替京城一〇九七〇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一〇番地 各種鎖子 杻鉀及建築用鐵物 金擎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百一番地 靴鞄原料 附屬品直輸入販賣 永昌皮革商會 電話光化門二〇〇八番 振替口座京城二三三七番

京城府齋洞 李甲秀內科醫院 電話光化門一四二四番 自宅光化門一九九〇番

京城府黃金町一丁目百十八番地 常平고무工業社 電話本局二九〇三番 振替口座京城三三二一番 販賣部 京城大和町一丁目四番地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〇三番地 共同貿易株式會社 電話光化門長六二五、三三九番 振替口座京城一八三九番

京城鍾路二丁目八二 圖書 文具 博文書館 電話光化門一二六九 振替京城二〇二三

『時來統合三分國、運去荒凉數畝宮』
溯及하야往昔과豫測하야未來事
‖옛가룡녀들의고흔목소리는안들리고 듯기실흔자동차와라팔소리가웬일인가‖
丁卯가回甲인勤政殿의哀訴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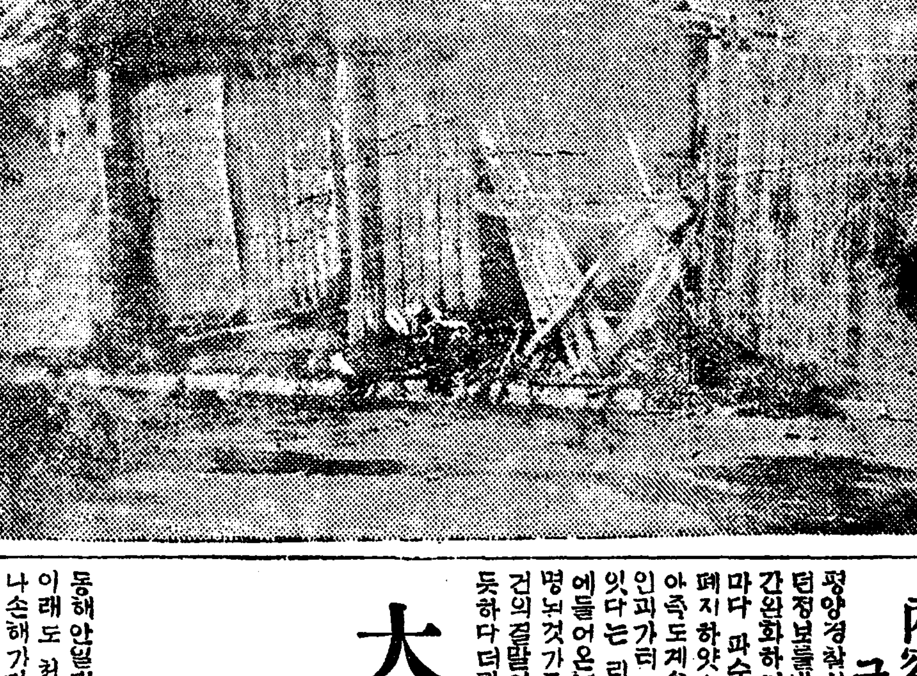
그러나 그때계곤난한 재정에가 진것을다하여가며 일을하다가 업천데 멈첫다고 몸채는아니엇지마는 엇젓든 큰화재까지잇섯습으로 피폐함이 극도에일으든 조야에서는 의론이 백출하게되야 역사를 중지하자는동 지금다시 계속해할수가잇느냐는동 모지라는 재목을어데가서 구하느냐는동 말실이 왜만핫ㅅ요만은 결국잇고 고집세인 대원군이십년경영으로 나를중수하는데 그만는것갓습니다? 불도의 쉬원(醫院)을 철폐하고 진부(陳腐)한유생들을 훙다가세던 그이라 례의 대원군식수완을부리여 당시정계(政界)에서내로다고햇덕이는 량반들의 선산에서몃십년 몃백년식 수호(守護)하든 구목(丘木)을다치는대로베여다가나 짓는재목으로 씨닷닙니다 그러니와 이곳저곳에서 불평을부르짓게되엿스나 아귀손세인 대원군이 나라법에쓰는줄을 그네들의 조상이 령혼이라도잇서 아는것이잇다면 조와할것이라고 몰아어 호통을하는동에 모나들웅웰하얏답니다 그래저래 ㄷ묘년에 준공이되는데 데일먼저 내가준공이되고 뒤를이어 교태뎐(交泰殿)자경뎐(慈慶殿)등이 차례로 준공이되얏는데 속담에안되는놈은 잣바저도 코가세진다더니 거진준공이다되야 ㄷ묘년이월에또불이나서자아노앗든재목들이모다타버렷답니다 그리고내압산ㄴ과천(果川)관악산(冠岳山)이 화산(火山)이되여불이자조난다는동지금사람들이들으면 코우숨을칠난반 괴상한 소리들이돌아다니게되야 광화문(光化門)압 량편에다가해태(海駝)를 만늘어세우고 한편으로 남대문박게우물을파고그속에구리(銅)로 거북(龜)을 만늘어넛는동가지짓을 다하엿닙니다 그래그러케뒤뭉석음하는바람에어느듯뎡묘년도 넘어가고 그이듬해인무진(戊辰)년봄철에 대황뎨 예서 내게로 이어하셧닙니다 그래서 나는 멸넘어(百)동안을 무심한 방초(芳草)로 떠돌어 지내다가 그저서야 새로히 넷주인을맛나 자미스러운생활을 보내게 되엿닙니다 그러나그후로는 인예내팔자가 사나운지 우리주인의운수가괴박한지 를알수업스나 원데두리의 나라운수가 폐이지못하고 아조비세하여저 버렷닙니다 그러나 아츰나움을차네의 자조지종을 첨더히구경한내 말하자면 내가 리씨조(李氏朝)입니다 그러나 내개하는사람들도 하루밤을 자면만리성을 쌋는다는데 내가 비컨파지금을생각하면마음이엇더하겟습니가? 한참당년에대원군이 다시나올지음에 공비(工費)가칠백만량이나들엇닙니다

×　×

넷사람은 변방에수(戌)자리 살러가서 멧해잇다가「비ㄷ에내가 갈째에는 버들이욱엇더니 지금 내가지남에는 눈비가 부슬거린다」昔我往楊柳依依今我來思雨雪霏霏'고읇피일이던동안에 세월을 가뎟업는아노앗다 나 지금내가룩십년전 파지(破墜)을할아면그럽마나검상이(感傷的)이것습니가? 어느량반이송도(松都)를가보고 시래통합삼분국(時來統合三分國)이오 운거황량수무궁(運去荒凉數畝宮)이라고웇허 지엿다며니 지금예내뜰이 꼴입니다 옛가룡녀(宮女)의 외꼬리가른목소리가 지금도 오히려내귀에려런거린데 쯧아니ㄴ 자동차와삿그러운 라팔소리가 내귀정을 에는를이야 무엇나 생각하엿겟습니가? 그러나 륙십년전의 그것이 오늘날이와가려 뒤집힐쎄에는 또다시압흘로오는 륙십년후에는 지금이뜰이 다시금변하지안흘것을 뉘다서 미리보증하겟습니가? 세상은 환롱사진의「스크린」갓고 세상일의 띄여(幻影)과가튼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압흐로 나타낫다 사라지는환영이나 구경하고 아모말을안하니하겟습니다 쓸데업시 이러니저러니이야기하야 마음만 상할필요가업는것입니다 하여간나 종일지라도 이자리에 내가잇섯든것들이 나알아주시요 (끗)

年初寬勳洞火災 小兒一名慘死
其外重輕傷者도十餘名
불난원인은아이들작란
◇一時는交通까지遮斷

이일오후 네시사십분경에 시내 관훈동 일백구십팔번디의오(市內寬勳洞) 민대식(閔大植)씨의 집행랑채 박응쇠(朴應釗)의 방에불이나서 맹렬한불길은 점점확대되여 그이웃집까지 첩번하려할지음에 경보를접하고 급히달려온 소방대의진력으로 불길은겨우 진귀박응쇠의방을 반옥태우고 다섯시십분경에야 비로소진화 하얏다는데 원인은방안에서 십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작란감 활동사진기계로 『필림』을가지고 놀고잇든중 잘못하야 석유에 불이부러서 그와가티불이난것으로 석유에는 이 브름을보고 아이들은 창황망조하야 엇절줄을 모르고 겹겹에엽혀차하는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어잇섯든바 맹렬한불길은 것삽을새도업시 이불에까지 옮겨부터서 그이웃집에서는 황금돌(黃金乭)이라는 어린아이는드듸되여참혹하도 타죽엇스며 그외어린아이들도 모다중경상을 당하엿다는데 그중에도 리긔순(李基順)(二) 황춘수(黃春洙)(三)의두아이는 자못중태이라는바 불은그리크지 안엇스나 어린아이들의 중경상자가 만히낫슴으로 一시는 대혼잡을 이루웟스며 현장에달려간 십수명의 종로서원은 교통을차단하고 부상한어린아이들을 병원으로보내어 응급치료를 시키는일방 또발화원인에대한 진상을상세히 됴사하야갓다더라



◇금년처음의관훈동화재터

混亂中에盜難
즉시경관에게톄포

관훈동(寬勳洞)민대식씨집 행랑채에서 불이나서 일시는대혼잡을이루엇다함은 별항과 갓거니와 그혼잡한틈을 리용하야시내본정이뎡목팔십일번디(市內本町二丁目) 리상표(李相杓)의호주머니에서 일원팔십전이든 지갑을 절취하려다 림장한종로서원에게 발견되야 톄포인치되엿다는데 이자는 일정한직업과주소가업시 떠돌아다니는 김로마(金老馬)(三六)라는『소매치기』상습자이라더라

萬頃江改築工事場에 中國勞働者大格鬪
중경상자를다수히내엿다
◇武裝警官多數出動

호남선리리(湖南線裡里)에서약 이십뎡가량되는목천포(木川浦) 백구뎡(白鷗町)근처에잇는만경강(萬頃江)개축공사를작년봄부터공비오백만원을드리려한다함은 루루보도한바어니와그로인하야 각처로부터 로동하려고 모여드는 로동자가 하루에도수천명식 모여드는중 그중에는 중국사람이 대반을점령하게되어현재에잇는 중국로동자가 수백명이되는데 지난일일 오전열한시경에 만경강(萬頃江)로동자들 사이에는 대판싸홈이닐어나 손에각각『삽』과 『광이』등을들고 고함을지르며 소싸움을하는판에 당디주재소(駐在所)순사도는도저히진무시킬능력이 업슴으로 곳리리경찰서(裡里警察署)에급보를한바 급보를 접한소관리리서에서는 무장경관 십여명을 현장에출동시키어 진무에 로력하는 일면부상자를조사하는중 진두에 당한곱파중경상자다수를 내엇는데 그중에도 위중한 인은 소고력두(小苦力頭) 하진동(夏振東)이란자가 대고력두(大苦力頭)장옥당(張玉堂)에게 먹을 밀가루를 청하다가수지를 안흠으로 감정상으로 쌈이되자 각각부하들이모여들어서도어우러지그와가티일시격투를이룬것이라더라

楊州에 白晝强盜
갈퉁을고후십로인을 월더피해자생명위독

강원도화천군읍내하리(江原道華川邑內下里) 홍십번디장여천(張汝天)은 지난 삼십일일오후 두시경에 양주마치고개(楊州馬峙峴)에서강도의칼니마저 생명이위독하다는데 자세한 내용을들으면 길에 양주(楊州)에사는 친척의집에심방할 작정으로 양주마치고개를 넘다가 강도를맛낫는데 그곳친척되는사람이 건긔 피해자의아들 장긔현(張驥鉉)에게 지금 면화는향으로 지난늘일에 자뎐차노 양주를 떠나갓다는데 자세한내용은알수업다더라

放蕩한아우 兄걸어訴訟
아우는내토디를내려 형은랑진할가바안줘

강릉군강릉면 대화뎡(江陵郡江陵面 大和町) 최윤영(崔允榮)(三五)은 동군송뎡리(松亭里)에잇는 자긔의형인 최윤원(崔允元)을상대로소송을 뎨긔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원래 윤영은 경찰각디로 도라단이면서 유족한가산(家産)을 전부랑진하다십히 랑유하는 동시에신가뎡의 신생활을 죰해보려고강릉읍내에 아방궁(阿房宮)을 세우고 얼마동안은 신생활을계속하여 오든바 형되는최윤원은 그대로두면 남어지토디를 마자업새 것슴으로 자긔아우의 토디권부를 자긔명의로 이전수속을하엿는데 윤영은 금년봄에 다가 얼마전에나려와서 대화뎡에잇는집을팔려다팔지못하고만 흔채누에 심한독촉을 견데ㄴ못하야 자긔형에게 이전한토디를 내여노라고하나 형은방랑한 너로서는 모다탕진 하겟슴으로 내여줄수 업다고 거절한바 권긔윤영은 자긔형을상대로 한흥디방법원 강릉지텽에 소송을뎨긔하게된 사실이라는바 일반은 만흥흥미를 가지고 결과만기다린다더라(강릉)

酒에醉한日人

…町)에 잇는 잡화상 하옥신뎐(丸…)의압해서는 두사람이사건이물…
…돗는시의소등을사아내더니견국 현장에서 졸령하고 말앗는데피…
…일(西野武一)(뎨)이라는사인바 처음…
…양 방금어엿븐한 취됴를밧는중이 피해자의시테는 가…

색다른職業로만스 (3)

넘나드는玉手에 허러지는黑髮
‖시내삼백여군데리발소에는 녀자리발사가단하나뿐이다‖
朝鮮初有의女理髮師

시내에 흘터져잇는 조선중국일본의 세나라사람 리발관(理髮館)의수효는 삼백여군데로그에 종사하는 리발사들의 총수는무려 천명에 달한다는데 그중에도다만 하나 만록총중일뎜홍(萬綠叢中一點紅)의격으로녀자지아니한 이채를띄이며 직업부인으로서의 최초의 녀자리발사로 고군분투를 계속하는 견실한녀성이잇스니 그는 과연누구이며 그는 또엇더한 생활을하고잇슬것인가?

一面은職業場 一面은愛의巢

수표교(水標橋)다리에서머관원(大觀園)을 향하야 조곰올나가라면 서편으로 ××리발관(××理髮館)이라는 간판이부튼적은종에도 아담한맵시잇는 집이잇스니 그집이바로 조선최초의 녀자리발사인뎡씨(鄭氏)라는딱한부인이 그의남편과 더부러 한편으로는 직업(職業)으로다름한편으로는사랑의복음자리를 꾸미어고잇는 세상에도 재미잇는 스위ㅣ트홈인것이다 뎡씨는 금년이십세의 아직젊은몸으로 지금으로부터 칠팔년전에는 시내모녀학교에 재학중이엇스나 그후에

여러가지 넉넉지못한 사정으로 말미암어 부득이중도에서 학업을폐지하고 그의남편이되는 배씨와 결혼을한뒤에 한편으로는 그의남편을 도아서 장래의락원을우미고 또한편으로는 외국에는 녀자리발사가 흔히잇는터이나조선에는 아직하나도 업슴으로 부인직업으로서의 리발영업이적당하다는것을 일반 녀성에게 알리기위하야 아츰부터저녁까지 조곰도쉬일새업시 형형색색의 남자의 머리와 씨름을하고잇는것이라한다

困苦는樂之種 將來爲해奮鬪

제석(除夕)의 종소리가 하놀에 울리는섯달그믐날반 긔자는 ×리발관으로 뎡씨를 차저가니 뒤마층 뎡씨는이편에 그의남편 배씨는 저편에 다각기손님을하나식마터가지고 가위질을 분주히하고잇슬때이엿다 벽에 걸린 뎨경과 교의에 안즌손님의 머리와눈싸홈을하여가며 분주히가위를놀리고잇든 뎡씨는 려방가위를 쌔각거리며

『감상이엇더하냐고 무르시지만 뭐별감상이잇겟습니까 그저처음에는 어려워서 참아못하겟더니 차차해보니까 이제는아주 익숙하여서 아무렇지도 안습니다 그리고소원이라고는 얼는 돈을벌어서 커이(그의남편)와 남부럽지안케 살생각이외에 무것도 업습니다 괴로운것이요? 그야여러가지로만치요 그러나 이러한고생을 잘참어야후일에 안락하게살것을 생각하면모든 걱정과 괴로움은 봄날의눈과가티 사러저버려요』 하며 가만히 엽헤서 빗을들고잇는 그의남편을 슬적처다보며얼골을붉힌다

所聞달하繁昌 來客이倍增해

그래도 섯달그믐날이라고 그런한시 어지간히 손님이밀리여서 벌서세사람이나 차례를 기다리고 잇게되엿다 하로의 수입이얼마나 되느냐고무르니 이번에는 배씨가

『글세요 지금맛는료금은 막와는데는이십전 하이카라는삼십전인데 하로에평균 오륙원수입은됩니다 그런데 참사람의마음이란 우수운것이야요 똑가튼사람이 리발을해주지마는 그전에는 하로에 불과십여명밧게 아니되든것이 지금은 그의배가되는 십명이 훨신넘습니다 그러니아마 녀자리발사라는것이 평정이인가 봐요』 하며 만족한우슴을 얼굴에가득히씌웟슬적에 기름을발러서 윤이질질흘르는 손님의 하이카라 머리를 어엽부게 두갈레로가르며 『에그머니 무엇이그래요』 하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그의 남편을 흘겨보앗다

大風浪東海岸掩襲
附近海路는擧皆不通
어선파손삼십륙척, 토디류실천여평
危險迫頭한三漁村

동해안일대에는 요사이에 백년이래도 처음보는 대풍랑이닐어나손해가막대한중강릉해안에는지난이십오일새벽세시부터풍랑이이러나밤열한시까지계속하야묵호(墨湖) 안인(安仁)남항(南港)견소(見沼) 사천진(沙川津)강문(江門)오리진(五里津)등각어촌에서는 무한한 공포에싸지엇스며 어선들은 대개출범치안엇슴으로다행이그다지큰피해는업섯스나 해변에매엇든배가 파도에 밀리여 파손된것이삼십륙척 류실된가옥이 이호(流失家二戶) 도궤일호(倒壞一戶)그물(網)삼십오건 류실된토디(土地)가 일천백여평이요 그외에해변동리집에는침수되야동산(動産)의 류실도만핫스며귀선도 긔박(寄泊)치못하야일시는해로(海路)의교통까지두절되엿다는데 이번 풍랑은 백년이래에처음된다더라(강릉)

理髮師의美擧 경긔

경긔도리천군 장호원(京畿道利川郡長湖院) 대흥리발관(大興理髮館)주인김규면(金奎冕)씨는 당디공립보통학교생도중 성적(成績)이우량한학생 륙십명에한하야 금년일월부터 영구(永久)히무료로 리발을하야주기로 하얏다는데 일반은그에대하야 칭송이자자 하다고 (장호원)

徹夜로警戒 덕천경찰서

평남덕천경찰서(平南德川警察署)에서는 … 가얼동하야 당디청년들로 조직된소방수(消防手)들과협력하야 밤을 새워가며 계속경계한다더라(덕천)

外面은緩和코 內容만嚴密
근일평양경찰

평양경찰서에서는 지난달일 엇던정보를밧고 비상경계를 당분간완화하기로 하엿다는데 골목마다 파수와긔마순사의 행순은폐지하얏스며 형사들의 활동은아죽도계속하는 양인바 모범인피가티 조선에들어온 형적이잇다는 리승춘(李承春)은 조선에들어온형적이업다는것으로판명되엿것가트며엇던디방에서이사건의결말이되얏다는풍지가잇는듯하다더라(평양)

不意高喊으로 東拓會社大騷動
알고보니醉客의주정
뎀비는바람에대경실색

경의선사리원(京義線沙里院)에잇는 동양척식회사지뎜(東拓支店)에는 지난달삼십일밤에엇더한사람ㄴ명이 달려들어서 고함을치고 야단을하는바람에 시렵이라 숙직하든 삼사인의사원(社員)은 대경실색하야 엇지할줄을 알지못하고 쥐구녕을차저다니며 야단을치는 동안에문밧게서 떠들든소리는 업서지고 고요하여젓슴으로 정신을 일코날뛰든 사원들은 다시정신을수습하여가지고 알어본즉실상은 술취한사람의 소위로판명되엿스나 놀난가슴을 엇케하지못하야 다시잠을 일우지못하고뜬눈으로 그날밤을 새웟다더라 (사리원)

◇苦學堂의美擧 동대문박게잇는 흥인배재학교(興仁培材學校)안에잇는 흥인강습원(興仁講習院)에서는 교실이업서 매우곤난하든바 이것을본 고학당(苦學堂)에서 교실피기타긔구 一切를 빌리엿슴으로 동강습원의 직원과학생들은 고학당 당국자에게 감사한다고

◇玄武會懇親會 시내 락원동(樂園洞)에잇는 조선현무회(朝鮮玄武會)에서는지난일일에 시내에잇는 유도(柔道)와검도(劍道)의 유단자(有段者)들을동대문밧개운사(開運寺)로초대하야 신년간친회를겸하고 조선무예의 통일과장래발전에대한토의가잇섯다고

警戒의波動으로 電車만受害!
‖작년에비하야승객의줄이 구천사백오십사인이나된다고‖

요사이 시내각처에는 계엄상태와가티 각관공리는 물론이요골목마다 무장경관과 사복형사들을배치경계한다함은 루루보도한바어니와새로운신년을맛게된에도 오히려 시가는쓸쓸하야매년 정월에 만히보는 취꾼조차 업서 실로 한산하기짝이업서새해긔분이 족음도나지안는바 전차의 승객으로보드래도 목만칠천이백인의 상천삼백구십원이로 작년에 비하면천ㄴ칠백오십인의 상전육백륙십팔원칠십전의 감소를 볼수잇는것을보아 시가의한산한것을가히알수잇슬것이라더라

◇米洲大地震 損害百萬弗◇

미국『카리포니아』주『카렌』디방에는 지난일일에 격진(激震)이잇섯는데 수개소의 큰건물들은 피해를입엇스며 다행히 사망자는업섯다고 (『카리픽스』뎐보)

同別報‖해외다보도에의하면『람피리알나데』전부에손해가잇는데 『멕시카리』재류민들의 가옥은 다시건축하지아니하면 거주할수 업게되얏스며 그디방에는 삼십개의 『호텔』 파소규모의 상업뎌 건물이 약간 파괴되얏는데손해는약백만불가량이라더라(『카리픽스』뎐보)

…에서는매양엄이경계를하여오든중 요시에에는 매우경계…

◇凍死體‖지난십이월이십륙일에 경긔도가평군상면 룡길리구장 송재효(京畿道加平郡…)…上面東吉里長宋…씨가 자긔동리에서 시테를 발견하고조종경찰관주재소(…駐在所)에보고하야 주재에서됴사하야 포천군청산면 초성리(抱川郡青山面…里)에사는 김영년(金永年)(꽃)이가약종을가지고단이다가 술이잔득취해서 포천으로가는길에 내돌흔는다가 불에싸진후얼어죽엇다고(가평)

歷代御蹟이거듭헌 感古堂은팔렷다
민적식의소위인지리왕직의소위인지는몰라도비난불소
感古撫今에感淚를難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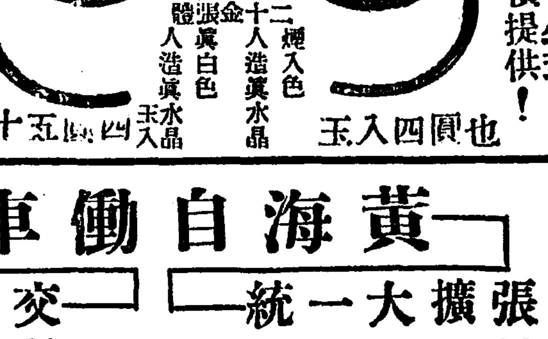
시내안동(安洞)에잇는 감고당(感古堂)은 민정식(閔庭植)씨소유로서 민씨가 상해로가고신용이떨어진후로 리왕직에서관리하게되여 한참당년에 들날리다가 상뎐이벽해된후로 살집까지 업서지게된 민씨들이모조리 그리로 모혀들음내든 대일을위하야 불소한 돈을되려 중수하시든집도 이집이다 안코 영종대왕의 어필이아즉도 남아잇는이째에 그집은민씨의손을떠나 다른사람의 물건이되기는 실로누구나 감개무량을금치못하겟다는데얼른보면 사사집이지마는 내용을 드려다보면 리조의흥쇠와 국운의비태를말하는 운명이가티되는 그집이 산하의 주인이박귀인 오늘날에 려양부원군종손조차차뎡성하게되야 민장관도어름에 팔리게되얏다리왕직에서팔앗는지 그팔리는것을 몰랏는지민영식씨의 단독행동인지는 몰라도 일반은여간비난치안는다 더라

영종대왕(英宗大王)께서 넷일을추모하사 대가(大駕)가 납시와 감고당(感古堂)이라고 어필로현판을써주신 집도이집이요 명성황후(明成皇后)께서 친정… 숙종갑술(甲戌)에시국이박구이 … 운셰월을보내시든곳도이집이요 … 년동안사저에서씀씀히도눈물겨운셰월을… 후에압서일시폐위를당합시와륙 … 의 청뎐고롬이 되엿는데인현왕후께서 … (位)를회복하시든곳도이집이오

高麗共青 總會開催
간도서도대표출석 진년책에대한협의

해삼위(海蔘威)에잇는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青年會)에서오는이십일경 해삼위에서총회를소집하고시국에대한것과및 진년책에대하야협의할것이잇다는바 간도(間島)와 기타각디에서도대표가출석하리라더라(영고탑)

登錄商標 차 박가분 화장원조 京城府蓮池洞 電光三三…

▲最新푸린쓰式! 眼鏡實價提供!

本標 也圓四入玉 四圓五十錢 二燒入色 米十八人造眞水晶 眞金張 鍍白色 人造眞水晶入
京城府諫洞七十五 大山商會

昨暮路上訴訟記錄紛失인바拾得人은通知하시면厚謝하겟삽 京城齋洞八六 辛廷植

大懸賞募集
要事項 大正十五年度內地米實收額
募集期間 昭和二年一月六日부터一月二十日外지
用紙 葉書、住所氏名明記할事
屆先 京城日報仁川支局
審査發表 政府發表의日부터五日間
賞品 一等金側懷中時計 二等銀側懷中時計 三等裝飾置時計 四等手提袋 五等銀貨入 五等에서六等外지『방고펜시루』
主催 仁川 福 取引店

黃海自働車部
張擴大一統 交通大便利
黃海道西部一帶의交通機關으로長淵、淵康、松禾三個所의自動車部가有하든바今番當局의許可를得하야三本部를統一하고黃海自動車部라改稱하야長淵에本部와各所에支部를設하고 內部의刷新은勿論
營業線路
海州長連間(長淵松禾殷栗經由) 長淵苔灘間
長淵海州間 長淵猪島間(松禾殷栗長連經由)
夢金浦信川溫泉間(長淵經由)
長淵松禾溫泉間
長淵夢金浦間 松禾松禾溫泉間
長淵信川溫泉間 長淵九美浦間
豐川信川溫泉間(松禾經由)
殷栗金山浦間
長淵今卜間(松禾殷栗長連經由) 長淵碑石浦間
(但長淵今卜間은四月부터十一月外지) 長淵猪島間은十二月부터翌年三月外지通運함
營業範圍의大擴張과乘客의便利를力圖하나이다
黃海自働車部 主 朴鳳淳 白

모양잇고질긴고무신은 상평
登錄商標 平 常平고무
常平고무工業社 京城黃金町二丁目一八 電話本局三三九〇 振替京城二三〇三
販賣部 京城西大門町一丁目四 電話光化門一五六三 振替京城一三三五〇

生徒募集 朝鮮水原高等農林學校
詳細는十二月上旬一月下旬朝鮮官報參照 願書締切三月五日 入學案內必要의分은三錢切手封入申込

京城府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一〇五〇番
●新春無敵의特別大興行 十二月卅一日(金曜日)부터同五日外지 一月一日부터五日間晝夜興行
地獄極樂 全七卷
漂泊의人 全八卷
電光의로맨스 全五卷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當一月五日(水曜)부터大公開 ●二大特選名畵一齊히大封切!
勇氣凜凜 全七卷
再生의男 全十卷
運은자면서期待하라
폭쓰週報 全一卷
夜의鷹 全七卷
三銃士 全十二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新春超特別大興行 十二月三十一日封切 一月一日부터五日外지晝夜興行
水陸百萬人力 全七卷
虛榮은禁物 全六卷
스페드의1 全四卷
콘레이太公望 全二卷
猛襲 全二卷
國際時報 全一卷

廣告 …

有利한好職 男女遠近 自宅에서 … 大阪 三圓 豊國總本店

國喪表章用 빈 … 大阪市東區平野町 心齋橋 … 補堂支店

年增歲加하는 朝鮮豫算解剖

◇羅谷生

第一、머리말

財政은政治機關의會計를料理하는것이니政治가잇는以上반드시財政이存在하나 其內容에至하야는時期와處所를따라相異한事實이다 今日의財政은國民의共同利益을充足할目的으로此에要하는經費를租稅의徵收에依함이原則이다 딸하서財政計劃의善否는곳國民에게가장큰直接利害가잇는것이다

그럼으로泰西에서는『代議院이업는곳에는國民의納稅의義務가업다』고말한다 이것이即立憲政治의中樞는豫算政治라는것이다 그리하야財政問題가英國立憲運動의原動이엇고 北米合衆國獨立運動의導火線이되고 佛蘭西大革命의潜在原因이엇슴은 누구나다周知하는事實이다 그런데우리朝鮮의이方面의史實을도라보면過去數千年을通하야爲政者에게一任하야如何한苛斂誅求라도오즉服從하엿든것은事實이다 또現在에도우리의選出한代議院이업서도 如前히租稅를負擔하는것도事實이다 勿論아니다 우리의살림은날로破滅狀態에至하야 우리의所得도減少함에 不拘하고도 最近의朝鮮의所謂政費는 年增歲加하야 其費用은우리가直接間接으로膏血을絞搾當하면서負擔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이貴重한大金을負擔하면서도 其內容及使途에對하야는何等의審議機關이업시오즉幾個의官僚의立案과折衝에依하야決行되는故로이것을우리는窺知키極難하다 우리말이매우苟且하지마는現實에잇서서는엇지할수업는事情인故로 우리는다만資料蒐集된範圍內에서 이것을事實그대로觀察하야 所謂朝鮮豫算이如何히增加되엿는가또는그것의使途가엇더한方面에重要한地位를가지고잇는가를調査硏究하야多少라도우리의計劃的方面 學究的方面에眞實한基礎가되면 筆者의所期한目的은이에足하다 그러나筆者亦是斯界에淺學非才의所致로見解의未熟한點도만흘뿐아니라우리의悲哀를더욱늣기는資料缺乏에因하야 事實의內容이不備한點도만을줄아나 오즉讀者諸氏의懇切한敎導叱正을期待할뿐이다

第二、舊韓國時代 豫算額及使途

우리朝鮮이衰頹하게된原因이勿論하나둘이아니다 그러나그重要한原因中하나이亦財政狀態의腐敗에存在하엿다는것도明白한事實이엇다 舊韓國時代로말하면 첫재宮中과府中의區別이업섯스며 따라此로因하야各種의弊端이層出하엿다 이제그弊端의幾個를擧할진대 宮內府에는 그自體의財政部所謂『經理院』이라는것이 存在하야國家의그것곳度支部와는全然히別個存在로各種의稅金을徵收하엿스니 곳鑛稅 家屋稅 樣貨商稅 其他無名雜稅等이그것이다 造幣局도그管轄下에잇섯스며 當初에는國家財政部에서經營하든人蔘專賣도結局은그手中에歸하고말앗스며 此外에宮內府는國家財政部로부터莫大한

金

錢의支出을要하엿슬뿐아니라맛당히國庫에入할收入에對하야서도干涉을行한다는이러지아니하엿섯다 이러한狀態에處하엿슬時에朝鮮에一定明瞭한豫算이업섯슬것은勿論이다 何如間其後다른나라의그制度를본바다 光武九年度에비로소豫算制度가確立되엿스나 事業을遂行하야 그制度가形式上으로라도確立하게되얏는바 光武九年度以來의豫算은 그編成된豫算이란아니라 그러한事實이엇셧서豫算을遂行치아니하엿다 其後光武八年(明治三十七年)에야비로소光武九年度豫算을세우기로決定하야 當時內閣의各部로하야금 그各豫算을

編成케하엿슬뿐이나 事實에잇서서는豫算이遂行되지못하고 勿論이도不備하야 十二年(明治二十八年)이엿섯스나 高宗皇帝在位三十

財政의支出을行하야本年度豫算은期間內에經費를實行하야 所定期間內에支出한이 勿論실로支出키엇스며 또그實出한經費이엇스나 何如間實際에잇서서는 事實이 不確定한것은事實이엇다

光武九年度豫算總額을綜合하여 가지고 光武八年末에公表하고各部로하야금 필수잇는대로豫算에依하야事業을遂行케하엿다 即光武九年度에야처음으로朝鮮豫算制度가形式上으로라도確立하게되얏는바 光武九年度以來의豫算歲出總額은經常費及臨時費를合하야九百五十餘萬圓에不過하엿다 隆熙四年度까지의累年歲計表及歲出의使途區分을明示하면如左함

◎自光武九年度至隆熙四年度舊韓國時代歲入歲出累年比較

年次	歲入總額 圓	歲出總額 圓
光武九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光武十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隆熙元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隆熙二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隆熙三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隆熙四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自光武九年度至隆熙四年度舊韓國時代歲出豫算使途區分

種別 年度	隆熙四年度	隆熙三年度	隆熙元年度	光武十年度
皇室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債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央行政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方行政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軍事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裁判及監獄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方財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關稅海務及燈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路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敎育及衛生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產事業經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營繕及工事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豫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三、合邦以後膨脹된朝鮮豫算總額及增加率

우에말함과如히 舊韓國時代에잇서서는 비록豫算制度가確立되엿스나 그것이잘遂行되지못하얏섯던것이事實인故로 따라서그의增加率도長足의進步를못한것도事實이다 그러나合邦以後로는 朝鮮의豫算이逐年膨脹하야 來年度總督府豫算은總額約二億一千萬圓에達하얏스니 이와가티膨脹된것은 空前의일이다 이것의使途가朝鮮人의幸福을爲함에잇든지 업든지는別問題로하고라도 今番의이豫算은朝鮮歲計發達上新紀元을劃한것으로보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舊韓國時代所謂豫算制度가確立된光武九年度(明治三十八年)의豫算은歲出이九百萬餘圓에不過하든것이 二十年後인明年度의豫算은 그의二十一倍以上인二億一千萬圓에達하엿다 明年度의豫算總額은 統監府設置의翌年인光武十年度(明治三十九年)의歲計에比하면二十六倍以上이增加되고 總督府設置의翌年인即明治四十四年度에 比하면約五倍가增加되고 更히已未運動當年인大正八年度의 그것即九千三百萬餘圓에比하면 二倍以上이나增加된것을볼수가잇다 이것을數字的으로合邦以後의豫算과그의增加率을表示하면如左하다

◎合邦以後膨脹된朝鮮豫算總額及增加率表

年次	歲入總額 圓	光武九年度歲入總額을百으로한增加率	歲出總額 圓	光武九年度歲出總額을百으로한增加率
明治四十三年十月以降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治四十四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元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二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三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四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五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六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七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八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九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一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二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三年度決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四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十五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年度豫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四、膨脹된朝鮮豫算歲出費目解剖

우에말함과如히合邦以後의朝鮮豫算은每年增加하야光武九年度歲出總額을百으로한明年度歲出豫算의增加率이 二千百九十七의數字를得하게된것은實로놀라운現狀이다 그러면그豫算의使途가무엇에重要한支出이며 또는그의增加率은엇더케되얏는지 알수잇는대로이것을解剖檢討할必要가잇다 合邦以後의重要한年度即總督府設置의翌年인即明治四十四年度와已未運動當年인大正八年度와그의翌年인大正九年度와最近의豫算과의歲出을目的別로分하야其增加率을考察하면如左하다

◎膨脹된朝鮮豫算歲出費目別增加率

使途 / 年度別	合邦의翌年인明治四十四年度豫算 十萬圓	己未運動當年인大正八年度豫算 十萬圓	己未運動의翌年인大正九年度豫算 十萬圓	大正十四年度豫算 十萬圓	明治四十四年度로본大正十四年度增加率	十四年度歲出總額에對한各項의百分率
李王家費	一、五	一、五	一、五	一、八	[illegible]	[illegible]
中央行政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方行政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裁判及監獄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警務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醫務及衛生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敎育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官業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營繕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債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豫算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治道海關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土木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土地調查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四、三七六、〇	[illegible]	[illegible]

即右表에依하야解剖考察하면 最近朝鮮豫算의使途가무엇에重要함을두엇는지推測할수가잇다 合邦當初에는治道海關土木費官業費地方行政費及警務費가重要한支出費目이더니 已未運動以後即大正九年度以來로는警務費가重要한支出項目이되고 官業費、地方行政費、國債費等의順序이며 最近에와서는官業費支出이더욱激增하고 警務費、勸業費、國債費等이順次로增加되엿다 이것을다시最近豫算總額에對한各費目의順序를觀察하면其中官業費는朝鮮豫算總經費의百分之四八、三即略五割을占하고 其次가警務費인대總經費의百分之十一、五가되고國債費가總經費의百分之十、二의順序이다 其外敎育費는總經費의百分之二、九에不過하다 其中官業費는大正十年以來의煙草專賣와大正十五年度以來의鐵道直營으로因하야自然巨額에達하엿스나 歲入增加의目的으로即生產行爲를警察한다는意味下에서보와 他經費의使途와別問題로論하야此는除하면 年增歲加하는朝鮮豫算歲出費目中에警務費가第一位를占하게되야朝鮮歲出總經費의百分之十一、五%에當한다 이것은合邦當時에比하야六倍半이나增加하엿다는所謂朝鮮敎育費五百二十萬圓에比하면四倍나더하고 또產業獎勵한다는勸業費에比하여도約二倍나되는警務費二千萬餘圓은朝鮮豫算의大宗인地稅收入額一千五百萬圓을超過함이五百萬圓이더하다 如此히警務費의增加는實로已未運動以後의事實이다 이것은前表의數字가證明함과如히그네들의말하는武斷政治가變하야文化政治로向하엿다는大正九年度부터의일이다 이것이우리가가장注意할것이오 또經費中注意할것은所謂國債整理基金의非常한增加이다 우리는現在地稅의同額인約一千五百萬圓의國債利子를負擔하고잇다 또이것이年增歲加하는現狀이다 要컨대朝鮮豫算의將來歲出重要科目은警務費의支出과國債元利金支拂額이大部分을占한다는것을指摘함에서친다

附記 以上은概括的으로朝鮮豫算의膨脹現狀과그의使途가누구를爲함인지? 歲出方面을解剖함에不過하다 그러고後日에다시朝鮮豫算歲入方面을解剖하야우리의負擔過重을細論하려하오니本論은이에그친다

出陣의노래

星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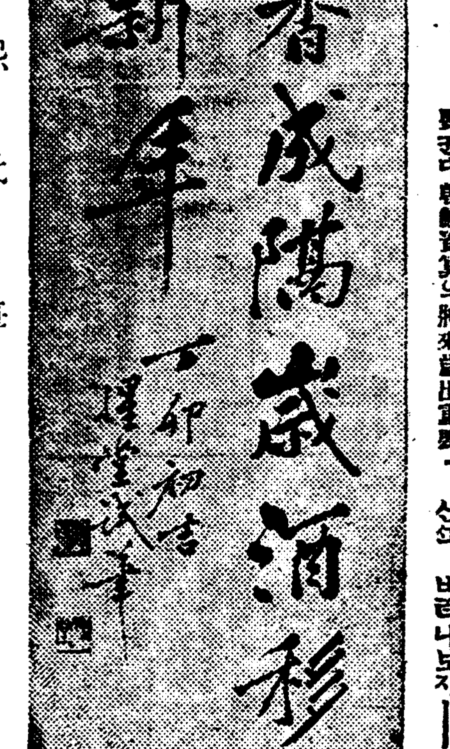
바야흐로 붉닷는太陽는써지고
아즉도이땅엔 안개가어지러히덥혓슬케
외롭은軍士는 해진옷자락을거더메이고
火炎ㄴ춤추는 피의街里로
무거운槍劍을 朝빗에번득이며
뒤떠러진이땅의 百姓을대신하야
자주빗險한 峻嶺을넘어
大膽하게 위태한그길로向하야걸어갓다
(그의조그만몸의 모두를한데불사라버리고)

◇

하나—
그의압길엔 숫케인원수의砲口가기다리며
數만흔魂백의 怨痛한우름만이한울에다아잇슬뿐이리라
그러나 그에게는오즉가슴에숨은鮮血의 鎔鑛爐와 깁흔怨恨에떨리는·간알픈팔독이빈한울을 쥐어시르나니
그러나 뉘敢히말일수잇스랴·원한에커즌그의魂이·다닷치는압길에마를자홍의光榮에對하야—

◇

오오 손을들라 한나라의사람들아
그리하야 자홍터에서 놉흔신의 비러나보자—(舊稿)



惺堂金敦熙氏筆

江景

湖南線江景中町 肥料各種農具販賣 朝鮮產業株式會社 社長 尹吉重 電話一〇五番

湖南線江景貴金町 米穀商 高允棧 電話一四四番

湖南線本町 株式會社三益社 運送部 電話一二四番

湖南線江景中町 江景勞働靑年會長 嚴鍾純

湖南線江景中町 印刷業文具商 文化堂 電話一〇一番

湖南線江景礦町 材木店 朴基善 長電話一五番

湖南線江景中町 蔘茸唐草藥材直輸入商 南一堂大藥房 主 姜在元 電話一一九番

湖南線江景錦町 金哲洙

湖南線江景中町 長興郡治 貿易商 嚴萬敎

湖南線江景黃金町 泰昌織物工場 石昌淳

江景體育會

韓一銀行江景支店職員一同

湖南線江景大和町 陳公洙

湖南線江景米町 辯護士 高宜煥

湖南線江景北町 辯護士 南廷瑚

湖南線江景本町 布木商 車斗徹

湖南線江景中町 米穀商 韓承敎

湖南線江景西町 客主 朴光三

湖南線江景中町 韓昌羲

湖南線江景中町 金相德自轉車舖

湖南線江景中町 미싱分店主 李在鉒

論山郡九子谷面巢觸里 尹甲重

論山郡豆磨面夫南里 眞宗鷄鳴講習會一同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尹夔炳

論山郡恩津面登里 孫進昌

論山郡夫赤面外城里 李根玉

論山郡夫赤面夫皇里 金珉洙

論山郡夫赤面德坪里 安鐘正

論山面伐谷面亭里 金堯欽

論山郡彩雲面中里 彩雲面長 韓相舜

論山郡彩雲面中里 李容龜

論山郡彩雲面中里 彩雲學院維持會

論山郡可也谷面細淵里 李康煥

益山郡皇華面鳳洞 金基豐

益山郡皇華面鳳洞 皇華面職員一同

益山郡皇華面華花里 盧秉權

益山郡皇華面華花里 金源國

益山郡咸悅面瓦里 精米所 林俊瑞

益山郡咸悅面瓦里 韓鳳雲

益山郡咸悅面龍池里 車崇伊

益山郡咸悅面新登里 韓完錫

益山郡咸悅面新登里 裵京洙

益山郡咸羅面新木里 崔東玉

湖南線江景中町 江景勞働靑年會

論山郡豆磨面夫南里 七星祈禱會

論山郡豆磨面石溪里 眞宗同朋敎會

002245

湖南線江景本町 延壽堂藥房 主 裵榮繡

湖南線江景中町 乾材藥房 柳景魯

湖南線江景中町 紳士 鄭希源

湖南線江景黃金町 李啓赫

湖南線江景中町 新化洋服店 主 李敏錫

江景新進靑年同盟會

論山郡陽村面仁川市 雜貨商 黃河淑

論山郡陽村面仁川市 陽村面長 金宅鉉

論山靑年會

論山郡論山本町 忠南醫院 醫師 高學貴

論山郡論山驛前 金運送部 金世旭

論山郡城東面藍尺里 金湖學院長 (喪中欠禮) 趙煥九

扶餘郡良化面笠浦 良化面長 成洛鼎

益山郡熊安面花實里 柳承喆

益山郡咸悅面瓦里 柳甲鉉

論山郡陽村面林花里 金鍾學

論山郡論山旭町 論山靑年副會長 李鎔煥

論山郡論山本町 靴鞋專門商 李鳳九

論山郡論山本町 海東洋服店 主 尹完吉

論山郡論山本町 金銀及靴鞋各種 鄭晋永本店

論山郡論山本町 牛皮商 千基德

論山郡九子谷面金谷里 朴東來

論山郡九子谷面金谷里 尹恒重

論山郡九子谷面金谷里 朴準攝

論山郡九子谷面金谷里 朴溶來

益山郡望城面新鶴里 朴德根

益山郡望城面金池里 河性鎬

益山郡望城面金池里 黃澈秀

沃溝郡瑞穗面孝岩里 金始煥

扶餘郡世道面菁浦里 秋聖玉

扶餘郡林川面飛亭里 李喆宇

扶餘郡世道面菁浦里 (喪中欠禮) 高相俊

扶餘郡林川面七山里 徐光烈

扶餘郡良化面元堂里 李豐鉉

扶餘郡良化面元堂里 金仁培

扶餘郡良化面足橋里 李濟健

扶餘郡良化面足橋里 李永煥

扶餘郡忠化面支石里 宋榮大

扶餘郡窺岩面事務所 金永熙

扶餘郡南面三槐里 徐基昌

扶餘郡南面大仙里 張翼遠

扶餘郡南面金川里 金顯國

扶餘郡南面松岩里 李炳翊

扶餘郡石城面縣內里 李載憙

論山郡伐谷面大德里 金福鉉

論山郡豆磨面豆溪里 全鐘翼

湖南線江景中町 尙美洋服店 主 尹桂洪

湖南線江景中町 市木及靴鞋商 李來栢商店

湖南線江景中町 各種靴鞋卸賣 平山商店 主 李用俊

成川

成川邑內 成川金融組合 職員一同

成川邑內 醫生 韓鎭五

成川邑內 應天醫院長 公醫 李泰奎

成川邑內 代理店所在地 [illegible] 成川自働車商會 職員一同

成川邑內 東元洋服店 主 朴洪觀

成川邑內 朴美洙

成川邑內 醸酒燒酒 原讓造場 原丑正

成川邑內 東明洋服店 金龍自轉車商會 金龍國

成川邑內 成川郵便所長 山下金次郎

成川邑內 支那料理 雙盛居

成川邑內 永睦鑛山事務所職員一同

官廳御用達 敎科書指定販賣 東華印刷所 支配人 鄭翼麟 成川邑內
各種印刷 和洋諸紙 帳簿製本 封筒製造 文房具一式

新泰仁

井邑郡龍北面新泰仁里 湖南木工場 金益煥

新泰仁驛前 井邑李樂三支店 綢緞布木 各種婚具 一式內外 紙物商店 主務 李羲學

新泰仁驛前 米穀商 金舜圭 電話十三番

湖南線新泰仁驛前 順天旅館 主 李成三

湖南線新泰仁里 精米所 姜漢秀

湖南線新泰仁驛前 三星商店 主 金在千

湖南線九石里 精米所主 姜大燮

井邑水城里 宋熙燮

湖南線新泰仁 金鐘宅

湖南線新泰仁驛前 永昌商店 主 李甲柱

湖南線新泰仁里 精米所主 金京植

成川邑內 平成商會 金永仁

成川邑內 東明旅館 主 金鎭湜

成川邑內 富山自轉車商會 主 尹致鎬

成川邑內 司法代書人 金允錫

成川面長 韓克洙

成川邑內下部里 成川面協議員 金永河

成川邑內 有志 金永珏

成川邑內 松讓旅館 主 金信浩

井邑郡龍北面新德里 朴梁緒

井邑郡淨土面 職員一同

湖南線新泰仁驛前三二番地 古銅鍮器 貿易商 造米商 朴昌緖

湖南線新泰仁里 精米所主 殷熙暉

井邑郡龍北面新泳里 米穀商 朴勝赫

新泰仁里 李熙冕

井邑郡龍北面新泰仁 金鐘遠

韓彭石

井邑郡龍北面新泰仁里 殷萬基代 姜贊命

井邑郡龍北面新泰仁 朴佑緒

湖南線新泰仁驛前三四番地 蔘茸唐草藥材直輸入 賣藥乾材藥局 永信堂藥房 主 張修奎

湖南線新泰仁 金洪錫

湖南線新泰仁驛前 泰仁病院 醫師 尹善旭

文藝

民族、社會運動의 唯心的一考察(一)
―反動、傳統、文學의關係―
◇―廉想涉

新年劈頭에 새삼스러히 이런問題로 몃마듸하랴는것은 다른外닭이아니다 日前에 엇던靑年이와서 이약이하되『자―지금朝鮮에서 農民을指導한다든가……얼른쉬운例로 요사이宣傳되어가는 文盲打破運動가튼것을 實行하잘디경이면 그것은 民族的精神下에서할까? 그러치안흐면 社會運動의一方途로 指導하여야할까?……』하며 매우疑訝難處하야하는모양이엇다 一人의마음으로 萬人의傾向을忖度할수잇고업는것은경우를따라다를것이나 只今의思潮잇는朝鮮靑年의煩悶의한가지는確實히여긔에잇지안흔가한다 民族運動으로인가? 社會運動으로인가? 그러나그것이 그처럼걱정일까?―社會運動으로인가? 그疑問부터먼저解決하야노코나야 할일이손에잡힐것인가? 또한이兩個運動은그다지도 分立하지안흐면아니될것인가? 그것은보기에달렷고 생각할탓이니커마다커대로 맛겨두려니와 이러한疑心에마음을覊定치못하고 頭緖를차리지못하는것이 한傾向을보엿다하면 또한 지나는버로보고 가비어히넉일것도아닌듯 마음에키이어서 다른問題보다는 이問題를擇한것이다『나』라는爲人은 本是이러하다는主義에 매어달린사람이아니다 無識으로도 그러하고無骨로도 그러하거니와 이미主義가업고보니 黑色、白色、灰色、그아모것에도 該當함이업다 다만自己의生活이다는것이잇는탓으로 깁지못하고 넓지못한대로 自己의生活을 統一하야갈만한自己의『생각』이잇슬뿐이니 다음은그것의一端일다름이다

一、反動과文學

生活感情에 分裂이생길때에 直前外지의生活은 벌서分解作用을 시작한다 따다서直前外지의生活을 支持하야오든思想은 墜落한飛行機모양으로 自己의觀念속에서 解體에着手치안흐면아니될것이요 現前의生活組織과 生活意識이 無用의廢物化한것을 왜다냐것이다!…이것이『反動』이라는것이니 一種의毀叛이다 旣存한思想 因襲한傳統에對한毀叛이요 現實에對한毀叛이다 一言으로蔽하면 反動은 現實打破다(釋明을要할바도아니어니와 本論文에서使用하는『反動』은現下의常用하는바 舊勢力의 逆轉的反動을意味함이아니라 一般的意味또는舊勢力의反動인新勢力을指稱하는경우가잇슬것이다 便宜上用語다)

그러나 分解作用以後現實打破以後에 무엇이當來하겟느냐는것은 反動그自體속에서 發見치는못한다 이것이 곳反動에는 猛然한破壞性을 가지고잇는 所以이거니와 現實打破以後에當來할 新生活의組織과 意識과밋이것들을總總일新思想의體系는旣成한一切에서나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새로운生活感情이叛旗를드므로말미암아分解되어가는對象物即廢物化한舊組織과舊思想의總決算으로서새로운一個의思想은엇게되고 또그것이 反動運動의目的을指定한다 그러나 그것도다만反動의目的 成算手段에쯧치는것이요 그以上더나가서 그反動運動이終結되뒤에出現할 生活樣式이라든지 모든活動의根本原理와밋그實際라는것은 오즉想像과計劃에쯧치는것이요 아모도아는사람은업다 그것은 아모도經驗한바가업는外닭이다 여기에서 反動期에잇는『푸로레타리아』에게는 反動行爲以外에는自己標準의文化的價値가잇는何等의人것도 가지지못한것을얼수잇슬것이다

反動運動의目的을 擇定하며 그實行에必要한모든感情 思想 知識 手段한아도그들自身의것이나 自身이만든것이아니라 否定하고破壞하라는 그過去의 生活圈內에서 어든것이기外문이다 말하자면 舊主에게서 毀叛하야나오、서 舊主의 世間사리를 어더가지고나왓거나 비러가지고나온쪽임되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不可避할일이요 또必要한일이다 舊主와永永分立하야 交涉이斷絶되면而已어니와 反動에對한反動이잇는以上에는하는수업시커便이『피스톨』을가지고威脅하면 이便에서도『피스톨』이必要한것이다 다만 그『피스톨』에對한觀念이 달으고『피스톨』을使用하는目的이 다를뿐이다 解毒하기爲하야 以毒制毒하는醫道이다

何如間에 그『피스톨』은 反動期의『푸로레타리아』가適하는文明 또는文化的價値를 가진것은아니다 그럼으로 反動作用이잇나고『푸로레타리아』獨裁期 또는그以後의社會에서는反動行爲期의生活을制約하야든 思想觀念도 不必要하게될것이다 帝國의軍隊가 毒瓦斯를發散할때에『푸로레타리아』戰線에서도 技術만能하면 倍加한努力이잇는毒瓦斯를 製造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勝利를어든後에는 그技術者는靑蓋瓦商이되어야할것이다

事實우리가지금革命前의『아라사』人文學―그中에서도革命運動에서取材한『트르게네프』의作品을볼커 우리의感想이엇더한가? 革命後의아라사人사람에게는말할것도업거니와 十九世紀後半의아라사靑年가든現在의우리로도 엇던風土記를읽는것가든感銘밧게엇지못한다 生活에서文藝를보면 한낫歷史的記錄이다 一面에普遍性이업는것이아니요 內在한藝術的價値가스러지는것이아니지만 時代의相隔은그만큼實感을減削하는것이다 가령『트르게네프』의『處女地』에 나타난思想이나感情이 革命後의아라사人사람에게는勿論이려니와 反動期에잇는우리의見地로보더라도그것은『뿌르조와』에게서 비러온『피스톨』에不外한것이요 決코反動와主體인『處女地』時代의아라사靑年自身의것이나 現代의 **우리自身**의것은아니니다 現『뿌르조아』文化의目錄에編入할것이요 反動期의文化도아니며 反動以後의人것도못된다는말이다 그것은作家自身의思想과態度가非反動(뿌르조아的)이기外문도아니요 取材如何의問題로도아니라思想그自體感情그自體가『뿌르조아』生活에서우러나온것이기外문이다 다만未來의生活의理想이 抽象的혹은想像的으로 朦朧히한구퉁이에 나라낫스나 그것이 곳 未來의生活自體가아닌것은 말할것도업는것이다 그러나 作品으로볼때에 時代 階級 人種을 超越한普遍性과 藝術味를가진탓으로 今後에도藝術的으로는生命을持續할것이다 그것은 마치『피스톨』이 **反動時代** 後에는 生命財産의守護神의地位에서 또저나서 娛樂用 狩獵用에나必要하게될것과 가튼理致일것이다(그러타고 藝術이 娛樂이라는말은아니다)

이러한理論은 反動期의『푸로레타리아』의文化가업고 달하서 反動期의反動階級을代表한文藝는 그現時에잇서서는旣成한文藝―所謂『뿌르조아』文藝―와對峙하야兩立하지만은 本質的으로보면 兩者가 同根異體임을立證하얏슴엔아니라 反動行爲以後―即反動階級(푸로)獨裁期에잇서서도 所謂『푸로레태리아』文化 혹은文藝가 不時에成立되지못할것外지를證明한다 그것은 反動階級獨裁期가 短縮되면될사록 理想實現이 早速할것이요 따라서엇더한期間以後에는 階級意識이 消滅될것이니外 그때에는階級人이아니라 民族의一員社會의一員人類의 一員일다름인故로『푸로레태리아』의文化 文學이라는것이 特定的으로存在할餘地가업는때문이다 이는나의持論이요 또한 그局에當한아라사評家『트롯키―』도 認定하는바ㄴ모양이거니와 이와가튼다만時間的으로 長久한歲月을要하는 한文化를 절문反動階級獨裁期內에서 **形成할수** 업는外닭일뿐아니라 그보다더큰理由는 그獨裁期도 아즉基礎工事時代임으로即 反動階級의理想을實現할草創期의試驗時代라는데에잇다 다시말하면그期間을支配하는思想은 아즉外지도 反動行爲期의思想그대로 蹈襲하얏슴엔아니라 新理想에適應한實生活이 아즉具體化하지 하얏스며 말하서 뿌리깁흔前時代의觀念이 모든사람의行爲―(精神生活이나 實際生活으로나)을比較的넓은範圍에서如前히支配하고잇기外문이다 그럼으로 眞正한『푸로레타리아』理想에符合되는文化 또는文學은 思想觀念 生活樣式等一切가 舊世界舊生活에서 完全히脫却하야人間生命本然의要求와 가장合理的으로誘導하고 暢達케할따라서 產出될것이다

首雲 金龍洙 氏筆

朝鮮畫壇의一年(上)
金復鎭

自然享樂의 心的機能은生活의必要로부터 發生하여가지고 派生的으로 그것이 遊戲的心狀으로되고 美的心狀으로된다는나의말두어句章을빌어가지고서 이글의序頭에 언커노키로한다

藝術의起源을 새삼스러히云謂하지안터라도 藝術그것이自然의模倣으로서發生되엿고 다시말하면 生活을基調로한 自然複寫의必要가 必要하엿섯던 緣由도發生되엿다는것은 거의文盲의集壇이라고 斷言할만한畫壇人에도이만한 智識의記憶은잇슬이라한다

그러면 여긔에빗추어 畫壇의一年間回顧와 나의進言두어마을 記述하여보기로하자

엇더튼 朝鮮畫壇이存立해잇는것이라고보고서 이畫壇의一年間 業績이라던지 畫人各自의功果가 얼마나한지 回想한다하면 거긔에는 우리가아모러한것을 發見하지못할 不幸만을가진것을 自認할뿐이다 더나가서 丙寅一年에만 이와가튼것이아니라는것이다

먼커 朝鮮에도畫壇이라는有機體가存在하여잇다고 보고서 지금團體的으로나 個人的으로 아무러한功果나 業績이업다는것은 言辭에正鵠을넘은것가트나 其實畫壇自體나 畫人各自에잇서서 畫作으로의飛躍이업고 思想으로의進境이 보히지안음에야 이를엇더타하랴 進涉이업는것은 退讓으로보는것이나 朝鮮美術界에잇서서도그過分한人員을 包有하고서오로지封建時代의 遺我는夢고 이로自己隔離를 夢想하야不可解의地境을 固執하랴한다 이에무슨業績이잇슬리가업는것이다

藝術의起源은 生活을基調로하얏다고말하엿다 生活의必要로藝術이形成된以上 生活의變遷으로하야 藝術이改形된다는것도●다가는理致일것이다 이것을歷史上으로考察하여본다면 三國時代以前에잇서서는 三國時代以前의 王朝時代의封建時代에서는封建時代의다各各社會組織에相應하藝術의內容과藝術形式을所有하엿섯다 새로운社會組織의 發生되랴는徵候가뵈일적에藝術에잇서서도새로운內容 새로운形式이 發生된다 이것은發生되랴는새로운組織의要求로말미아마發生된다 그래가지고 組織의新興과堅固에달하藝術도結成되고組織이瓦解 分離됨에依하야 藝術도 그運命을가치하는것이다 社會의組織이것이 바로藝術의內容이되고 組織이또特殊한 藝術形式을造成식힌다 이것은社會의組織이卽現實인外닭이요 現實로부터遊離한藝術이업는 緣由이다 眞一藝術이 生活로부터隔離된것이라면 밧구어말해서 組織에서 超然한것이라고안다면 우리는 참아이것을同題로하고십지안타 그러나 藝術의發生이이에보바의作亂이아닌다음에야딸하서아담―이부와同體가아닌다음에야 人類群의 生活의進化過程과 人類生活의具體的形態인 社會組織의 歷史的變革과 그行程을가티하엿슬것이다 다만지금外지의 社會組織의 解體와新興의交替에잇서서 이것이바로意識的이고 有目的이고革命的이고積極的行動임에反하야 藝術은追從的이고自然成長的이고因循的이요 舊生活組織의土臺위에、엇던藝術의 內容과表現形式이 새로운 生活組織으로도하야거의 頸生하게된新興藝術과의 그地位를 讓渡함에 靜暗한가운데에서 沈默속에서長期間硬使한交涉을하엿다 한개의滅亡으로 混沌과解體가잇고 한개의新興으로도하야 致芽와 發育라는 階級의順序가잇섯다 이가튼 無意識的消極行動으로하야 年代위에 社會組織의 變革과 커다란相距를짓게되것이다 이로말미아마 藝術自體가 能動的發展으로보게되고 藝術至上主義者의 이게好個의한眞理로化成된것이다 이와가튼眞理의 迷忘에싸진 藝術家는 自己隔離에沒頭하게되고門戶封鎖를自行하야 虛妄한王國의 創建을꾀하고 여긔에君臨하야 歷史는거슬러推進하려는 濟法의講究에 所謂賢明한五官의感覺을 消耗식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時代를 勿論하고 그裏面에 잇서 意識的이나 無意識的 이나 不間하고 새로운 組織構成에對하야 阿片性的魔醉劑로行使됨을甘受하야 社會組織이나 生活環境으로부터 超越하엿다고 自認하는 藝術이 實狀은舊組織의 擁護와代辯의役割을하게되는것이다 이리하야藝術의社會性을 否定할수업게되고 다만組織變革에 年代的相異가 잇는것이라는 結論을맵게되는것이다

小說 誘惑(一)
李箕永

오날아츰에삼석이는레배당으로 나려가는길에 옥단이집에들늘럿다 쇠그러진 삼간두옥인것은 글人자대로의 움막사리가 삼석이집이나 다름이 업다마는 그래도 아츰해가 선명하게비최는것은 태양(太陽)의 은총(恩寵)을입엇다고나 할는지?…… 이간의 맨미충으로서 가난하기도는반이다 상놈도 남의소작인되기도―그러나 한편에는 내외가가거서 鄕로는 구수한수작도잇는데 한편은 과부이것이 다르다고나 할가?―다만딸하나를다리고 사는 옥단이어머니가―삼석이는알에人말레배당 하인이다

『아주머니 계서요?』

하고 삼석이는방문을 펼쳐열고 고개를 쑥되미러보앗다 그는그전부터 옥단―모친보고 이러케 부르는外닭에―

『아니 우리죡하가 요새는 웨 빗씨을 안헷나?』

옥단이 어머니는 빙그레웃스며 그를마조 처다보고 하는말이다

『요새는무척 밧버서요!』

『무엇이그리 밧부답?』

『커― 목사댁아들이 내려와서요―변덕쟁이 마마님이 아들을위하느라고―그야말로 만청칭산늙은범이 살쩐암케를 물어다노코……』

부엌에서 설거지를하던 옥단이는 삼석이의이말을듯고 킬!킬!우서 버엇다

『아니 쉿울가서 공부한나는 그아드님이 내려왓군―』

『그러탐니다…… 아주머니! 오날구경가시지 안올녀유? 그학생이나와서창가를한답니다』

『구경은 무슨구경!』

『오날이아주 구경이조흔날이래요 쯧주일이란―』

『구경갈새가 어듸잇늬? 보리밧헤 풀이우굿한데!』

『의주파발에도 똥눌새가잇다고 좀쉬염쉬염 하시구려! 허 허! 참아주머니 쯧한가지만 주실녀유?』―

『쯧?쯧은 무엇하게―』

『오날이 쯧주일이다고 쯧을엿거오다는데 어듸쯧이 잇서야지요!』

『인저보닛가 우리집복사쯧을탐내러 왓구나! 우리애기가 성내라구?―』

하는 주인로파는 담배를붙이우으려지도록 빨나가 삼석이를처다보며 빙긋웃는다 그러나삼석이는 그의말이 떠러지기도전에 뒤란으로 뛰어들어갓다 과연울타리밋헤는 복사나무한주가 섯는데지금한참맷거니듯거니쯧상식을하기에 밧부다 간밤에쯧속에서잣는지? 흰나뷔 한마리는 추진날개를 퍼덕거리다가 이적에놀내서 날러간다

삼석이는 쯧나무 밋흐로가서 이놈저놈을 골느다가 한가지를 휘여잡엇다

『아서요! 아서요! 그것은……』

뒤미처 날카다운목소리가 귀人창을뗑!하고 울리는바람에 삼석이는 손을탁!노코 뒤를도라다보앗다 그는옥단이―뭄커올는 그의얼골을 부여뒤人문으로 내밀고잇는 입부장스런옥단이엿다

『아주그중 탐스런놈을 엮을나는것보아!』

하는그의목소리는다시노염붓고 눈초리는 샐쭉!하엿다

『그럼 엇던것을 엮거야한담!』

삼석이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렷다

『아가!왜그러니?』

하고 뒤미쳐 무릅을탁하며는소리와 함게모친의목소리가굴러나왓다

『아주 그중탐스런것을엮그랴니外그러지!』

하는 옥단이말소리는 다시엘리엇다.

『아!그래서쓰나?그럼네가가서 일러주렴!』

모친의 이말이떠러지자 옥단이는 사룸사룸나왓다―그는한가지를잡고『자―』하엿다 삼석이가 그놈을엮그랴고 달려드니外 그는다시『아니아니』하고 딴놈을가르친다 이러케 몃자례를하다가 맨나종으로 정해준것은 그중못나고 엉정한놈이엇다 그래 삼석이가 두덜두덜하며그것을엮는것을보고 옥단이와 그의모친은 서로처다보며 우섯다 옥단이는 손으로 입을가리고우섯다……

삼석이는그길로나가다가사리작압헤서 홱―도라섯다 그는옥단이에게 눈을흘겨엿겨 하더니 손가락으로 뒷산솔밧을 가르치고는 주먹을코에다 내며 벙어리말몸을하엿다 그래옥단이는 그말이우숩고도 겁이나서 한손으로는 입을틀러막으며 또한손으로는어서가라고내저엇섯다

×　×

이날 레배당에서는 쯧주일이라고 야단들이엇다 울긋붉읏하게 만국귀를달어매고 삼석이가 썩거온쯧은 화병안에 다른쯧과 함께 탁상우에올려노앗다 모든것이 전에업든이채(異彩)를뗴고 사람들도새옷들을입엇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삼석이를깃겁게한것은 옥단이와 한자리에안는것이엇다 그러나 옥단이가레배당에온外닭은누구인이속가는안속이잇는줄을 누가알엇스랴?

옥단이는 어케커녁에 삼석이와가려가던 청년을보앗나 그는그와짓 삼석이따위보는 공작새압헤잇는 外마귀엇다 그가오날 레배당에서 참가를한다는 말을 옹닷다 그래어머니를졸라서 오늘이자리에 참예하게된것이엇다

옥단이가 기다리든 그학생은 나왓다 그는강단안으로 쑥 벗쑥 버거려나왓다 그때옥단이 가슴은 떠르르하는무엇이 녹는것처럼안타까웟다 역시 어게와가른 입셰로 뭄이는 흠례바지를입고 새깁안 양복위로는 하―얀목이드러낫다 그것은 그의귀엽성잇고 해맑은얼골을맛드려다 이현산애는 과연생전에 처음보는 산애이엇다 그의오른팔 손녁에 감긴 금시계는 그는더옥현귀가날만치 황홀하엿다

『금시계다!금시계다!』

이쑤別안간 그학생의 목소리는 굴러나왓다―몹때도 우렁우렁하고 힘잇는그의목소리는방안이 웅죽웅죽하엿다 그의속구치는상성이 별안간 저음(低音)으로 내려질때는 마치천장만장되는 지함으로 떠러지는것가터 아슬아슬하엿다 그래 옥단이는 홀린드시 그의얼골을 처다보앗다 그런데그도 유심히 자긔를 쳐다보는것가타엿다 옥다이는 그럴때마다 가슴이달삭어리고 이제外지맛보지 못하든 산애에게서오는 행복을 늣기엿다

『삼석이그外지엿……』열에 열가지나 귀이를 버를수잇나? 숙새가 항새를따르라는 격이지……목소리도질자백이왜지는소리갓고―』

이러생각에허매이는옥단이는산석이를 처다보다가 무심코우슴이 나왓다 그러나삼석이는속도 모르고 거흐자 조와하엿다

『내인놈도 그리맙지안치!보하는생각은 다시 그는시금外지 삼석이한데바든회영수가새삼스그러데 天外시것을 이세상산애충중에서……』

레 분안생각이 더럭낫다

어느듯구경도 웃이낫다 옥단이는눈밧그로나읍때에우연히마조친것처럼 또한번그를 처다보앗다 그때의눈표정에 자긔의먹은마음을 한것내뵈라하엿다 마는야속한세상일이란거편에서도 그런줄을 알어차렷는지? 목렷는지 만일그가 그런줄을몰랏다하면 세상에 산애들은눈치업는것은 업다 하엿다

그쎄옥단이는도라스는발人길이 무엇을 이러바린것가티공연히서운하엿다

옥단이의 이러생각은 앗가外지도 사랑의봄人길로 타오르든 행복에 마치강물을드리댄것 가티써지고말엇다 그는 목사의아들이요공부하는도령님이니나가든존년놈……하는생각이―옥단이는 실심하는 맥이풀어진손으로그의삼작무릎을가만히얼엇다

×　×

느진봄쯧향긔무르녹는어느날 달밤이엿다 삼석이 그림자는옥단이집사리작뭄압헤어른거리엿다 그는이밤을거커보내기가부료하여동무를차커온것이다 군호할것도업시 그의가다리든 옥단이는어듸서불늠을것가다온다고그의압헤 나타낫다 그는닷자곳자로 옥단이의허리를딱숫엿안엇다

『아―놔요!아놔요! 누가보아………』

재집애는 긔급을하며 몸을바등바등비틀고 송충이머가리 내두른듯한다

『그날커녁에 왜나오지안엇늬?요망정아!』

『머―어듸를나 오지안아!』

『그러케 약조를하고서귀시웃게?』

『그대신 레배당에가지안엇늬?』

하고옥단이는 간지러운 우슴을 한번생긋웃는다

定州

定州郡城外洞 綿布雜貨 고무靴 店主 池成洙 電話三三二番 私書函一番 山運送業

定州郡城外洞 新安洋服店 主任 金壽健

定州郡城外洞 自轉車店 主任 金季洙

定州郡城外洞 建築請負 官廳及學校 和洋家具並硝子販賣 店主 吳德俊

定州郡城外洞 定一齒術院 主任 田性錫

定州郡城外洞 普成洋靴店 主任 宋鍾應

定州郡城外洞 雜貨商店主任 崔應善

定州郡城外洞 西鮮商會 主任 桂冕植

定州驛前 (天)商會 主任 金承燁

定州郡城內洞 全運送部 主任 鮮于爕

定州驛前 (成)運送部 主任 康德璟

定州郡城內洞 劉永錫

定州驛前 大成旅館 徐秉澈

定州郡城內洞 穀物 雜品 定州商會

定州郡城外洞 富昌堂時計店 主任 黃昌祿

定州郡城內洞 穀物牛皮 食鹽賣買 果實 公運送店 主任 白周燮

定州郡城外洞 宋錫珉

定州郡外洞 平壤豊樂燒 委托販賣 店主 宋吉秀

定州郡城內洞 白米 精米所 乾繭販賣店 主任 崔信浩

定州郡城外洞 輔仁醫院 主任 盧輔根

定州郡城內洞 司法代書所 主任 朴章五

定州邑內 孫仁權

定州驛前 官一自轉車店 主任 金官洙

定州郡城內洞 第一木工所主任 申性鎭

(合) 定州郡城內洞 海陸物產委托販賣 貨物取扱兼雜貨商 丸金運送部 主任 田洛淵

定州郡城內洞 九印章舖 主任 金聖鍊

定州郡城內洞 米穀商 朴利善

定州郡城內洞 朝鮮料理店 主任 任錫燁

密陽

京釜線密陽驛前 米穀商 朴敬熙商店

密陽城內 廣信洋靴店 主 權洞鎰

京釜線密陽驛前 米穀商 朱奉文

京釜線密陽驛前 米雜穀 肥料商 鹽 韓春玉商店 電話七番

京釜線密陽驛前 米穀商 金永奎 電話三〇番

密陽城內 米穀商 正信商會

密陽郡下南面守山里 鮮明理髮館 主 李乃淑

密陽郡下南面栢山里 農業 鄭五忠

密陽郡下南面巴西里 農業 閔泳敦

密陽郡上南面禮林里 米穀商 井上商店 主任 金永宗

密陽驛前 米穀商 金昌海商店

密陽郡下南面守山里 農業 曹斗允

密陽郡下南面巴西里 農業 閔雨植

密陽郡下南面守山里 農業 徐萬燮

密陽郡下南面守山里 金容煥

昌寧郡靈山面校洞里 辛廷植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守山精米所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守山國農湖 無名氏

密陽驛前 慶尙南道道會議員 陳起熏 電話八番

龜城

平北龜城郡內 龜城金融組合 鮮人職員一同

平北龜城郡內 朝鮮日報社龜城支局 金義贊

靈山市內 靈山自動車部 電話一三三番

平北龜城郡西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北龜城郡內萬年寺 住持 金俊冶

平北龜城郡內 金永贊

平北龜城郡館西面造岳洞 三成鑛事務所 鑛主 崔昌學

平北龜城郡館西面造岳洞 三成鑛黃哥谷 組合員一同

平北龜城郡內 龜城醫院 公醫 李益鉉

兼二浦

兼二浦金融組合 理事 藤井實

兼二浦明治町 三和組 姜範植

兼二浦明治町 精米業 吳鎭憲

兼二浦水道町 面長 石橋正光

兼二浦天眞醫院 醫師 朴來完

兼二浦大正町 石油 조선가신 雜貨商 鄭仁漸

黃州郡松林面 面長 方益燦

朝鮮日報兼二浦支局 支局長 張道俊

兼二浦本町 雜貨商 吳秉[illegible]

朝鮮社會運動의 意識上의 陣痛 (上)

◇—安光泉

一

朝鮮社會運動은 이제一大意識上苦痛을가지고잇다『그러나 우리의煩悶은偶然한苦痛이아니다 그것은우리의現在모든現實的條件의배속에서 成長하여온우리運動自體로도容納하고잇는偏狹한在來의子宮壁으로부터發하는陣痛이다』(李友狄—朝鮮之光第六十二號) 陣痛은 女性이產兒時에經驗하는疾痛이니그것은거진母體의生命을威脅할것가티아픈것이다 그러나그苦痛은不可避의것이며 必要한것이니그것이업시는貴여운아들딸이解産되지못하는것이다 그와마찬가지로朝鮮社會運動에도지금經驗하는意識上의苦痛도外觀上으로는거진우리의運動自體의生命을威脅할것가티混亂을惹起한다 그러나그混亂은 우리運動發展上不可避의것이니『그陣痛으로부터우리의政治的意識—政治的運動이産出成長된다』(李友狄—朝鮮之光第六十二號)

一切는過程的으로發展한다고그것은人類知識이 이미正當하게看取한 動搖식힐수업는宇宙法則이다

朝鮮 社會運動도이法則을버서나서發展할수잇슬理는萬無한것이니 朝鮮社會運動이 지금經驗하는陣痛은 大過程的發展을産出하는것이다 即朝鮮社會運動自體가 지금辨證法의正確性을實證하고잇는中이다

朝鮮社會運動의在來表面形態는經濟運動만이無產階級으로서할直正한運動이고 政治運動은墮落以外에는아모것도 意味할수업다고 理解되엿든 것이다 政治運動이라는 句를 말만으로도 敢히 發表하는者가잇스면 그는곳無產階級의背信者와가티 指目바덧다 그一例로서는 去年에 日本東京에 잇든月刊雜誌『思想運動』에 『朝鮮서도 政治 運動이 未久에하면 朝鮮社會運動者가 아나키스트가아니고 쏘디카리스트가아니냣가(駒)』라는意味의句가發表되엇슴애辱說은四方에이러낫다

이와가티 이써까지의우리의意識은原始的이엇다 幼稚하엿다 偏狹하엿다 自然生長性的이엇다 經濟運動萬能主義이엇다 非政治的이엇다

그러나 如斯한意識은 實로우리運動의이써까지의 發展階段에相應한意識이엇나니 無產階段은必然的으로 如斯한發展階段을過程하야 眞實한階級的意識—眞實한階級的運動‖政治的意識‖政治的運動으로 進展하는것이다 한階級全體가 한階級全體에對하야

展開 하는運動은如何한것을勿論하고政治運動이며 그것에相應한意識은政治的意識이다 故로政治的意識은 經濟的意識에比하야一層階級的이며 一層意識的이니 前者는後者보다 사못高位에處한다

朝鮮社會運動上 이제바야흐로政治意識이 힘찬呱呱의소리를치지아니할수업게되엇다 또그리할수잇슬것이다 우리運動이지금가지는意識上의苦痛은거無知한保守的組合主義者들이거정하는것과가티 不幸한混亂이아니라『時期尙早』의輕薄兒의作亂이아니라 眞實한프로레타리아意識‖政治意識을나흘우리運動自體의陣痛이다

解產을始作한母體의陣痛에對하야알어야하겟다는口實로써모르히네를쓰는것은 庸醫만이할짓이다

二

朝鮮社會運動에 지금 政治意識이생기기始作하다

正友會는十一月十五日에宣言을發表하엿다 그中에서가로대『…우리運動自體가 벌서從來에局限되어잇든經濟的鬪爭의形態로부터그보다一層階級的이며大衆的이며意識的인政治的形態로飛躍하지아니하면아니될轉換期에達한것이다 故로우리는 우리自體의從來의모든小兒病的症勢를抛棄하고 우리의勝利로의具體的前進을爲하야 現實的모든可能의條件을充分히利用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고

一月會는 十一月二十八日에解體宣言을發表하엿다 그中에서가로대『우리는 現朝鮮運動全體에잇서서 그運動을大衆的으로發展식힐時機에 다다럿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現實에잇서서 世界無產階級의모든要素와朝鮮特殊의鬪爭要素를結合하야 思想運動의領域을未脫한우리經濟鬪爭을 政治的鬪爭으로轉換식히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大衆的運動은政治鬪爭期에일으러 비로소그眞正한意味를가지게되는것이다』『朝鮮無產 階級運動은 그自身의內的發展에依하야 世界的環境의作用에依하야方向을轉換하려한다 우리는 이環境을明確히認識하는同時에다우環境을敏速히準備하지아니치못한다』『本會는 思想團體의役割을終焉의鍾소리를놉히처서 全朝鮮無產大衆의政治的鬪爭으로의轉換을絶對로促進하려한다……』

朝鮮勞農總同盟中央執行委員會는 十一月 日에聲明書를發表하엿다 그中에서가로대『……우리는朝鮮勞農運動이方今 한

重大 한轉換期에臨하여잇는것을늣기지아니할수업다……』『……우리는從來의態度를大膽하게고칠줄아는賢明을가저야할것이다……』『우리는從來로政治運動을否認하여왓다 그런데階級對階級의運動은本質上政治運動이니 政治運動을否認하는 階級運動은『原始形態』의運動임을免할수업는것이다 故로우리는從來의態度를勇敢히고처서 政治運動을是認하는同時에 勞農大衆에게政治的意識을喚起함으로써 當面大任務의하나를삼으려한다 그리하야 朝鮮에잇서 將次展開할政治的舞臺의 組合員으로하여금 積極的으로參加케하야 勞農大衆의政治上部分的利益일지라도 그것을利用하는것이조흘줄안다』

朝鮮之光第六十一號에실린猶昂의『思想團體에對한 나의片見』이라는 論文中에 가로대『無產階級運動은 그初期에 잇서서는 原始的 自然生長的性質을 가지지마는 一定한程度까지 成熟하여지면 自然生長性的大衆鬪爭은 目的意識性的鬪爭‖政治的鬪爭‖全階級的運動으로轉換集中된다 그리되어야盡善한運動이비로소可能한것이다 朝鮮運動이方今過程하여야할過程은正히그것에該當한다……』

朝鮮之光第六十二號에發表된李友狄君의『朝鮮現實과政治運動』이라는論文中에는가로대『우리는過去長久한동안쓰라린經驗에서 眞理를發見하는그만치聰明한者가아니면아니될것이다 우리의煩惱는實로여기에잇는것이다』『그러나 우리의煩惱는偶然한苦痛이아니다 그것은우리의現在모든現實的條件의배속에서成長하여온우리運動自體를容納하고잇든偏狹한在來의子宮壁으로부터發하는陣痛이니 그陣痛으로부터 우리의政治的意識‖

政治 的運動이産出된다 우리는그것을産出식히고 展開식히지아니하면아니되나니 그것이元來眞正한階級意識이며 眞正한階級的運動이다 故로우리는在來의方向으로부터 意識的轉換을斷行하야 政治的運動을힘잇게 展開하여야한다』『그런데政治運動은 長安大路와가티 그러케坦坦하고쎄웃한것이아니다』『只今우리는 우리의祖父나曾祖父에게서배운갑싼 感慨無量癖에醉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그리고우리는伯夷叔齊와가티굿다운觀念에只한潔癖性을 안고 그것만으로써滿足하여서는아니된다 貞操를지키는것만으로써 一身의光榮으로생각하는것은兩班時代의寡婦아씨의할일이다』『……大衆的政治運動의 戰野로 進出하지아니하면아니 될것이다』

東京에잇는우리의意識的要素는一月會를解體하고 政治研究俱樂部를組織한다 또그곳意識的靑年要素들은大衆化하기爲하야『朝鮮無產靑年同盟會』를『朝鮮靑年同盟』으로改名하는同時에새로政治文化部를두고政治的行動綱領을具體的으로決定發表하엿다

그外에上海에잇는有力團體 滿洲에잇는有力한團體東京에잇는有力團體로爲始하야

京城 에잇는서울靑年會 漢陽靑年聯盟等은 正友會宣言에贊意를表하엿다

三

以上에例示한것과가티 朝鮮社會運動에는 지금政治意識이發生된다 그리고이現象은前述한바와가티 우리運動發展上必然의것이며또絶對必要한것이니 지금發生하기始作한이政治意識에對하야 우리는最大努力을다하야 促進 昂揚할義務를가진것이다 그리하야 朝鮮大衆으로하여금될수잇는대로速히 眞實한階級意識을단단히把握하게할義務를가진것이다

그러면如何히하야無產大衆으로하여금眞實한意識‖마르키씀을가지게하겟느냐? 레ー닌은答하여가로대『이意識은오즉外部로부터 注入 할수잇슬뿐이다』 無產大衆은 그自體의能力으로서는 다만組合主義的意識에達할수잇슬뿐이다 우리의眞正한意識을形成할수잇는學理는 元來『所有階級의敎育잇는代表者智識階級에依하야 取扱된者를 歷史 經濟의理論으로부터生長한것이다 近世의科學的社會主義의創設者인 ……의스도亦 그社會的地位로말하면 부르조아的 智識階級에屬하여잇섯다』고 如斯한關係는 朝鮮에잇서서더욱顯著할것이나 朝鮮無產大衆은 그無識에잇서 他國의大衆보다一層甚하다 故로朝鮮에잇서서는 理論으로써武裝한多數의意識的分子들이大衆中으로 깁히들어가서그敎理를傳播 注入하기에남보다一層敏活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不足하다 如何한敎育 宣傳도 單純한敎育 宣傳이어서는 그效力을볼수가업는것이니 그것은

實踐 과緊密하게連結되어야한다 故로大衆의政治意識을昂揚식힘에는政治行動=具體的으로開始하는것이 絶對로必要한條件이다 故로레ー닌은가로대『萬若勞働者가 모든專橫에對하야 모든壓制××××—그犧牲者가잇든階級임을勿論하고—의出現에對하야 奮起하는習慣을부치지아니하면 더욱히唯一의社會民主主義的見地로부터奮起하는習慣을부치지아니하면 勞働階級의意識이되는것은 眞實한政治的意識이될수업는것이다 萬若勞働者가 智識的及政治的生活의모든發現에서 使社會階級의 各個各個를觀察하기爲하야 現時의政治的諸事實及諸事件을利用할줄을모른것가트면 그리고 社會的諸階級 諸箇階及集團의活動과 生活의모든形態에對하야 唯物論的 基準과分析을 適用할줄을모른것가트면 勞働大衆의意識은 眞實한階級意識이될수업나니 이말이正確한것은 다시말할必要도업다 故로우리는 우리의政治意識을促進식히기爲하야 理論의注入과 具體的政治行動(政治的暴露를含함)을連結하야展開식혀야할것이다

以上의말을다시要約하면 朝鮮無產大衆의 政治意識을成長식힐必要가 지금우리에게切迫하엿다 그리고 그리함에는

理論 으로써武裝한分子들이 政治運動의必要를부르지지면서 大衆中으로뛰어들어가는同時에 大衆과한가지實際로 政治行動을開始하여야한다

正히如斯한階級에잇서 政治運動의傾向과 政治運動에對한意識的새理論의刺戟이 政治運動을否認하엿든朝鮮社會運動의子宮에對해전것이니 그것이또되어朝鮮社會運動의意識上의陣痛을이르킨것이다

四

陣痛은 새展開를나흘先驅이다

그런데 모든發展過程은鬪爭의過程이며 鬪爭은 對立的이다 政治的意識으로의發展이 如何히必然의 또必要한發展일지라도 그것은在來의意識政治運動을否認하여온在來의意識과對立하야 一場의싸홈을격지안코는成就될수업는것이다 故로레ー닌은가로대『프로레타리아』는決코 彼等自身의 색두조아的偏見으로부터 一擧에解放되어질수잇는것이아니다 그것은奇蹟에依해서도 또聖母마리아의命令에依해서도 또如何한會合ー간如何한決議 如何한 布告에依해서도 解放되어질수잇는것이아니다 그것은오즉색두조아的影響에 對한長期의困難한大衆的鬪爭에 依하야서만 解放될수잇는 것이다』고하엿나니 우리의敵은 우리自體內에서도發見되는것이다 故로우리는政治意識을戰取하기爲하야 爲先우리스스로를克服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政治意識에對한 우리自體의對立的意識은 果然現出하엿다 朝鮮에 잇서서의 政治運動反對의意思는 朝鮮서가장有力한思想團體의하나인前進會의일홈으로써發表되엇나니 前進會執行委員會는十一月十九日에決議하야가로대『今番友誼團體正友會의發表한宣言(新政策)은 朝鮮

朝鮮 民衆運動發達의形態及現實에비초여 統一的指導政策이되지못하고도리혀一般民衆의方向을眩惑하는新傾向으로認定……』한다하고 다시十二月十五日에는正友會宣言에對한檢討文을 發表하엿다 그全文은어더볼機會를엇지못하엿지마는 그一部를보면그中에는『正友會宣言中『우리運動自體가 벌서從來의局限되어잇든經濟的鬪爭의形態로부터 그보다一層階級的이며 大衆的이며意識的인政治的形態로飛躍하지아니하면아니될轉換期에達한것이다』云云에對하야는 無產階級의經濟的苦痛이極甚할대라 經濟的鬪爭을第一義로하되‼……』云云한句가發見된다 京城無產靑年會執行委員會에서도 十二月十二日에 正友會宣言反對의決議를發表하엿다

그리하야正友會宣言은 前進會及京城無產靑年會에依하야右傾이라는烙印을씨히게되엇다 於是乎 左翼右翼!이라는大書特書가新聞題目에나타나게되고兩翼을가춘 飛行機가漫畵의中天에날랏다

그러나 우리로하여금 評하라하면 大書特書의 新聞題目은 結局 政治上無知를曝露한것에不過하고 飛行機는無意味하게미리떳다 朝鮮社會運動自體의現在對立은決코左右翼의對立이아니라 政治運動是認의새意識과 政治運動否認의從來意識의對立이다 眞實한프로레타리아敎理의政治意識과 大衆의自然生長性的의組合意識의對立이다 左右翼은政治運動을是認한後에비로소될것이다 비로소抗鬪될것이다

安協 非安協‼改良×‼ 等에對한裁×判도 亦是그러할것이니 그것들을政治運動에對하야서솜다하면 政治行動으로是認한우에서 비로소問題될것이다

新聞題目과漫畵飛行機는結局朝鮮社會運動의現在過程에對한認識의잘못에서産出된것이다

墨鷺 李用雨氏筆

丁卯略史 (二)

△紀元三〇〇〇年(高寶藏王二十六) 唐李勣이十六城을破하고劉仁願이留鎭하다 (羅文武王七) 唐을도아서高句麗를치다 (日本天智天皇六)近江에遷都하다

△紀元三〇六〇年(羅聖德王二十六) 唐에使를보내다、永昌宮을修葺하다 (日本聖武天皇神龜四) 國司의政績을巡察하다(中國唐玄宗開元一五)九月에吐蕃이瓜州를陷하다

△紀元三一二〇年(羅元聖王三年)神宮에祀하고大赦하다、京都에地震되고蝗이잇다 (日本桓武天皇延曆六) 十月에遷都의詔가下하다 (中國唐德宗貞元三) 雲南擧王牟尋이內附하다、回紇이和親하다 (西紀七八七)『니게아』宗敎會議에서偶像崇拜를許하다

△紀元三一八〇年(羅文聖王九年)伊飡良順等이叛하다가伏誅하다、太子를冊封하다 (日本仁明天皇承和十四) 圓仁이唐에歸하다 中國唐宣宗大中元 李德裕를貶하다

△紀元三二四〇年 (羅神德王十一) 唐以南十餘城을 後百濟에被奪하다 (日本醍醐天皇延喜七) 延喜通寶를짓다 (中國哀帝天祐四、後梁太祖開平元) 朱全忠이簒立하니唐이亡하다 蜀王建이稱帝하니

△紀元三三六〇年(麗顯宗十八) 宋江南人李文通이 書冊五百九十七卷을 來獻하다 慧日重光寺를命建하다 (中國宋眞宗天聖五) 西域僧法吉祥이梵書를來獻하다 (西紀一〇三〇)『곤라드』二世가시레스위히를『덴』人에割讓하다

△紀元三四二〇年 (麗宣宗四) 林昌槩를遼에보내다 西京에幸行하다 崔誅를遼에보내다 (日本堀河天皇寬治元)義家淸原武衡가伏誅하다 (中國宋宣宗元祐二) 王安石의經義字統을禁하다(西紀一〇八七)위리암一世가死하니次子『루후스』가英吉利王이되다

△紀元三四七八年 (麗毅宗元) 帝釋院에幸行하다 升補試를始設하다 裵承古를金에보내다、西京人李叔等이金兵을迎하다가伏誅하다 金賀保完顔宗道가오다 (日本近衛天皇久安三) 二月에前左大臣源有仁이薨하다(宋高宗紹興一七)八月에趙鼎이卒하다 金과蒙이諧和하다 元이稱帝하고天興이라改元하다(西紀一一四七)

△紀元三五四〇年(麗宗三年)崔忠獻의甥朴晋材가勇客을多畜하야忠獻을欲害타가被殺하다 (日本土御門天皇承元元)四月에前關白兼實이薨하다 (中國宋寧宗開禧三) 吳曦가蜀主가되엇다가伏誅하다 韓佐胄가伏誅하다

△紀元三六〇〇 (麗元宗八)蒙使가安慶公을來遣하다 (中國宋度宗、咸淳三) 十二月에蒙古阿求가入寇하다 (西紀一二六七) 法王黨이皇帝黨을『후로렌스』에서敗하다

△紀元三六六〇年 (麗忠肅王十四年) 瀋王에게王位를欲傳타가不行하다 (日本後醍醐天皇嘉曆二) 道平이다시關白이되다(中國元晋宗泰定四)張珪가卒하다(西紀一三二七)英國會가『에드와드』二世를廢하얏다

△紀元三七二〇年 (麗王禑十三年) 廣興倉이告匱하니百官의祿俸을減하다 明에使를보내다 百官의官服을定하니一品으로九品外지紗帽團領을皆服하고品帶의差等이잇다 鄭地가對馬島를東征하기를請하다 私田의半租를거두어軍餉을準備하다 (日本後龜山天皇嘉慶元) 北朝에서改元하다 (西紀一三八七)『시기몬드』가匈加利王이되다

△紀元三七八〇年(世宗二十九) 內府의 白樺白鍾畵鍾을 泮宮에두다 (日本後花園天皇文安四)朝鮮에船一隻을 歲遣하기를約하다 (中國明英宗正統十二) 沙州衛民을山東에移하다(西紀一四四七)『미오노』의『위스고지』朝가絶하다

長湖院

長湖院青年會 長湖院運動團 曉泉少年會

長湖院 黃永秀

利川郡淸渼面松山里 盧相煥

長湖院 金榮國

長湖院 李龍鎬商店

長湖院 中華料理 慶和館 鄒本貴

長湖院 長湖院洋服店 朴瀅善

長湖院 共春堂藥房 金演奎

長湖院 朝鮮酒類製造業 姜永敎

長湖院 金重鉉商店

長湖院商工協會 大成社 共益組合

長湖院勞友會 會長 李圭泰

長湖院 泰華商店 趙慶華 趙在新

長湖院 內外金物並ニ護謨靴都散賣業 劉重植商店

長湖院 덕내商店 李憲來

來長湖 長湖醫院 院長 尹基東

長湖院 李東載

長湖院 相和商店 尹秉學

長湖院 李昌雨

長湖院 金英伯

長湖院 酒類販賣業 申利川

長湖院 鐵物商店 尹泰興

長湖院 共信堂藥房 李允根

長湖院 濟蒼堂藥房 朴性奎

陰城郡甘谷面 甘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陰城郡甘谷面上隅里 林淳玉

陰城郡甘谷面 長湖院養鷄場

陰城郡甘谷面元堂里 李載錫

陰城郡甘谷面旺場里 共信商會

長湖院 李漢星自轉車舖 主 李漢星

長湖院 米穀鐵物商 金裕爽

利川郡淸渼面老塔里 穀物貿易商 申鉉玉

長湖院 齒科醫 郭潤德

長湖院 允錫自轉車舖 金允錫

東亞日報長湖院分局 分局長 趙成玟 記者 趙在新

陰城郡金旺面 面長 李容卨

長湖院 李鳳雨

陰城郡甘谷面旺場里 長院農場

長湖院 泰華精米所 趙慶華 金日煥

長湖院 半島寫眞館 主 崔鍾碩

利川郡淸渼面老塔里 崔鍾南

長湖院 金景圭

長湖院 貿易商 昌信堂藥舖 崔完基

002246

陰城郡 甘谷面職員一同

利川郡 淸渼面職員一同

陰城郡甘谷面旺場里 兪鎭泰

陰城郡甘谷面旺場里 東一堂藥房 南宮

鏡城

鏡城朱乙驛前 金成兄弟商會運送部 金斗鉉 金德鉉

鏡城郡朱乙驛前 吳黃龍 吳益龍

咸鏡北部線朱乙驛前 竹林運送店

鏡城郡朱乙驛前 食料雜貨商 大棕支店 主 犬飼留次郞

鏡城郡朱乙溫面 面長 崔鵬南

鏡城郡乙朱溫面龍川洞 面協議員 朴英勛

鏡城郡朱乙溫面 面協議員 金宗浩

鏡城郡朱乙溫面河面洞 面協議員 崔峙鶴

鏡城郡朱乙溫面河面洞 面協議員 崔仁述

鏡城郡朱乙溫面河面洞 崔仁鎬

鏡城郡朱乙溫面永康洞 面協議員 金羲鍾

鏡城郡朱乙溫面執三津漁業組合 金鶴九 張志泰 姜瀚

鏡城郡朱乙溫面執三津 海陸物產委託販賣 南青松

鏡城郡朱乙溫面執三津 海陸物產委託販賣 韓用基

鏡城郡朱乙溫面執三津 貿易商 金儀孫

鏡城郡朱乙溫面執三津 海陸物產委託販賣商 兪鎭華

咸北朱乙驛前竹林運送店 溫大津荷扱所 崔東鎬

鏡城郡朱乙溫面 溫大津漁業組合 理事 金利聖

咸北淸津港邑北商會出張員 尹啓孝

咸北淸津港安承泰商店 朴辰萬

咸北明川郡東面極東市 泰一釀造所員一同

咸北明川郡東面極洞 朴鳳儀

鏡城醫院(鏡城邑) 院長 具德煥 韓河鉉 助手 金貞輔

三陟

三陟郡廳職員一同

三陟郡廳 朴云赫 李喆均 李鐘曄

三陟郡遠德漁業組合職員一同

江原道三陟邑 西洋料理 東洋軒 鄭一煥

三陟郡遠德面臨院港 海陸物產貿易商 李禹振

三陟郡遠德面臨院里 朴秉極

三陟郡莊湖港梁順煥回漕店 南有敬 梁漢鏞

三陟郡近德面楮谷里 農業 金衡澤

江原道三陟郡遠德面 臨院回漕店 鄭學伊

三陟郡近德面楮谷里 農業 金振根

三陟郡遠德面理川里 朴光烈

三陟郡廳 金根榮

江原道三陟邑 海東自轉車商店主 鄭仁和

三陟邑內 朝日理髮館主 崔寅燮

朝鮮日報三陟支局 支局長 朴準龍 記者 吳元模 記者 金元壽 記者 鄭健和(北坪駐在) 外務員 白鳳基

朝鮮日報三陟支局 顧問 鄭舜敎

三陟邑測量業務所 測量及製圖技術員 鄭源基

三陟郡汀羅港 海陸物產商 李鍾範

三陟郡近德面事務所 朱河榮

三陟金融組合 黃舜和

江原道三陟郡 三和寺

三陟郡公立普通學校 隈部義光

三陟邑 權相雄

三陟面事務所職員一同

松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北三面事務所職員一同

江原道三陟郡 天恩寺

江原道三陟郡天恩寺 鄭漢宗 金祥雨

三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三陟邑中里 司法代書人 沈之濆

三陟醫院

三陟邑 眞珠佛敎青年會

三陟邑 竹藏幼稚園職員一同

近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三陟邑 三陟洋服店 主 愼有英

朝鮮日報三陟支局 顧問 洪淳璣

三陟郡北坪市 三一商會

三陟北坪市 綢緞布木商 崔敷益

元山

元山府上洞 保光中學校 電話八二四番

元山府 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 樓氏女子普通學校

元山府銘石洞 進誠女學校

元山府銘石洞 海星普通學校 電話七二二番

德源郡縣面星羅里 私立德明學校

元山府廣石洞 光明普通學校 職員一同

元山府南山洞 元明學院

謹賀中年始缺禮
元山公立中學校
元山公立商業學校
元山公立高等女學校
元山公立第一普通學校
元山公立第二普通學校
元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
元山公立尋常小學校

謹賀中年始缺禮 德源郡縣面 葛麻公立普通學校 訓導 韓吉淵

葛麻公立普通學校 訓導 金台欽

元山第二公立普通學校 訓導 張基欽

元山府山祭洞 元山救世病院 電話四〇三番

元山府廣石洞二番地 回春局 金潤秀

元山府南村洞一一六 醫生 禹舜命

元山府上里二洞五六番地 普昌局 醫生 金子宣

元山府橋下洞一六番地 各種藥材 各種普通藥 都賣 散賣 保命堂藥房 主 鄭昌祚

咸南元山驛前 東西藥種 有賣藥 賣任 醫料機械 及化粧品 信正堂大藥房 主 金基鉉

元山府北村洞 春城醫師會

元山府廣石洞二番地 綢緞布木商 楊桂云

元山府場町 海陸物產貿易委托 德興商店 電話三九番

元山府上里二洞 元山客主組合 電話九四七番

元山府上里二洞二五 元山仲介組合 電話五二七番

元山土曜會

元山府上洞二一五番地 海陸物產貿易及委托業 金泉永和商業株式會社 元山出張所 主任 黃健秀 電話二三九番 電信略號(명)

元山府新村洞九十七番地 海陸物產內外國輸出 牛生委托貿易 販賣業 張翼軫 電話五三一番 電略(장)又ハ(チヨウ)

元山府上里二洞 海陸物產委托販賣 咸南商會 長電話一二七番

元山府上里一洞一〇 海陸產物貿易委托 咸明商會 電話四三一番

元山府北村洞 海陸物產貿易委托 大洋商會 電話一〇五七番

元山府北村洞六番地 元山貿易株式會社 電話二六〇番

元山府北村洞一九 海陸物產貿易委托 崔莊鏞 電話三六一番

元山府北村洞 海產物貿易及委托業 海星商店 電話長二二七

元山驛前 海陸產物貿易委托 兄弟商會 主 李鐘玉 電話六二八番

元山府北村洞三五 金永根 電話五六七番

元山府北村洞 海陸物產貿易委托 明成泰 電話五六〇番

元山府上里二洞八番地 北鮮倉庫株式會社 電話五三六番

元山府北村洞四九 綢緞布木洋雜貨 各種帽子製造 京阪輸入都散賣 大昌商店 主 鄭稷模 電話七二八番

元山府上里一洞 海陸產物貿易委托 興業社 電話四一七番

元山府上里一洞 海陸產物貿易委托 協成商會 電話一一二番

元山府上里二洞 海陸物產仲介商 金桒田 電話五〇六番

元山府橋下洞 海陸物委托業 張守一 電話六一八番 電略(一)又ハ(イチ)

元山府中里一洞 海陸物產貿易委托 二成商會 電話五三三番

元山府北村洞五一 綢緞布木食料雜貨 金德商

元山府南村洞二九 綢緞布木及雜貨商 李三鉉商店 電話七二八番 振替口座ドー七八〇番

元山府橋下洞四四 海陸物產委托販賣 染料製造 黃天日

元山府南山洞 紙物貿易商 李性麟 電話七三七番

元山府銘石洞 貿易並委托業 宋龍澤 電話六六二番 電略(송)又ハ(ソウ)

京元線葛麻驛前 德星精米所 主 崔吉鎬

京元線葛麻驛前 穀物貿易 吉興商店 主任 南吉祜 電話二二四番

元山府銘石洞一三〇 平安精米所 元山支店 主 金利基 電話八二三番

元山府海岸通二丁目 穀物貿易及委托業 金成寬出張所 本店電話一六七番 出張所電話九六一番 電略(김)又ハ(カン)

元山府旭町二丁目一四 穀物貿易委托商 徐相泰商店 電話一〇三七番 振替口座八三九番

元山府石隅洞一六二番地 各種穀物 平元商店 主 金源鎬

元山府南村洞一三四 染織及染色染料販賣商 全雲玉

元山府北村洞七三 各種油類製造 徐光燮商店

元山府南村洞一番地 和洋雜貨商 不二商店 主 金泰植

元山府上里一洞 和洋雜貨輸入商 一興商店 電話七二三番

元山府廣石洞二番地 和洋雜貨 南陽寫眞館 南陽商店 主 南辰熙 電話四二三番

元山府石隅洞一二八番地 燒酒正宗 醬油醋 石油 日光商店 主 姜錫在

元山府場村洞一一七 素麵製造販賣業 金得珍

元山府上洞一八五 菓子製造商 韓吉龍

元山府銘石洞 菓子製造商 李泰和

元山府場村 菓子製造商 金春實

元山府廣石洞 雲龍理髮館

元山府上洞 上洞理髮館 主 洪守義

元山府旭町二丁目三番地 汽船組合 發動回漕店 電話七一八番 電略(미)又ハ(ミカ)

元山府旭町二丁目 帆船組合回漕店 電話一二五番 電略(선)又ハ(サ)

元山府上里一洞 元山自動車部 電話一四五番

元山驛前 貿易委托並運送業 共成運輸組 主 李春河 電話長八三六番 受信略號(공)又ハ(キヨウ)

元山驛前 仁興運送組 電話二六九番

元山府南村洞七二 共同組第一區 組員一同

元山府上里二洞 共同組第二區 組員一同

春城券番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金彩仙

元山府南山洞 藝妓 金月華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李玉花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李彩姬

元山府橋下洞 藝妓 李花香

元山府南村洞 藝妓 牟秋月

元山府龍洞 藝妓 朴花仙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成桂香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楊錦潤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元彩玉

元山府上里一洞 藝妓 千金子

元山府南山洞 藝妓 河彩環

元山府南山洞 藝妓 洪明心

元山府上里一洞 中國料理 公發樓 電話一一六番

元山府海岸通二丁目一二番 穀物貿易及委托業 米穀商組合營業部 電話九四三番 電略(미)又ハ(ベイ)

元山府上洞一八三番地 米穀商 雜貨 永興朝鮮 韓君弼商店 電話五五四番 電略(한)又ハ(カンクン)

元山府南村洞三五番地 精米業 米穀商 韓致恒商店 電話三六九番 電略(항)又ハ(コ)

元山府海岸通一丁目 石油空罐 草物麻袋 委托販賣 咸舜泰商店 電話四一一番

元山府海岸通一丁目 麻袋、叭、石油罐、米雜穀、木炭貿易 販賣海產物 中西商店 主 金炳翼 朴寬根

元山府陽地洞六三 李圭成

元山府場村洞一九七 李應鎬

元山府本町五丁目三六 金爽龜

元山府上洞二一〇 周仁弘

元山府場村洞 飯田龜太郎

元山府上里一洞一〇九 權永植

安邊郡安道面梧溪里 李鐘翼

元山府銘石洞 文武洋服店 店長一同

元山府南村洞 歐米式洋服店 主 姜俊燮

元山驛前 金子洋服店 主 李炳燮 元應龍

元山府上洞一二三 元興洋襪工場 主 尹益鉉

元山府南村洞十一番地 元昌洋靴店 主 趙□

元山府銘石洞 洋靴及運動靴製造業 仁興洋靴店 主 朴奉根

元山府館洞 朝鮮ゴム工業株式會社

元山府北村洞 金銀細工製造販賣所 白泰根

元山府本町五丁目 松木ゴム 元山支店 電話六二八番 電略(マツ)又ハ(송)

元山府石隅洞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元山分店 主 高昌益

元山府銘石洞 建築材料販賣 鐵路力板 相信商店 田□□

元山府南村洞二四 洋靴商專門 韓興洋靴店 主 元□ 電話八二二番

元山府上洞一五一 材木都散賣及 衣籠粧籠販賣商 朴亨淳

元山府上里一洞 各種自轉車販賣及修繕 金元自轉車商店 主 金元淑

元山府上洞一二〇 紙物、油物、染種、荒貨、洋襪物、銀、竹物、鐵物、洋燭、實銀金、木皮、染料、苦子、竹心、藥器、各種貿易委托販 奇芸珏 電略(기)又ハ(キ)

元山府上里二洞 海陸運送業 發動汽船帆船取扱業 保險代理業 海東回漕店 電話九四七番 電略(해)又ハ(カイ)

元山府旭町二丁目 フ船井漕回店 電話四〇六番

元山府上里一洞 朝鮮料理元祖 海東軒 電話八六五番

元山府銘石洞 合名會社 大成釀造場 電話四二〇番 電略(대)又ハ(タ)

元山府龍洞六十八番地 朝鮮日報社元山支局
支局長 趙鍾九
總務 趙奎夏
顧問 南主彦
記者 金相翊
記者 金演栽
記者 林用賢
記者 尹順旭
記者 趙時元
集金員 趙俊成
第一區配達人 趙鍾穩
第二區配達人 張濬鎭
第三區配達人 趙載金
電話一三七番 振替口座京城一三三九九三番

元山府場村洞 金演義

元山府銘石洞 金景俊 電話八一五番

元山府中里四洞 金演韶

德源郡赤田面松中里 洪淳璿

元山府南山洞一九 辯護士 宋寅台 電話七〇五番

元山府外縣面斗山里 果樹園主 尹秉秀 電話八二二番

元山府上洞 朴昌祚

德源郡縣面斗南里 尹秉喆

元山府場村洞 金秉元

元山府龍洞 金秉河

元山府銘石洞 李世模

喪中欠禮 元山里郵便所長 陸奧時亮

元山第二消防組

組頭 張翼軫
副組頭 植田三吉
第一區長 小頭 李淳喆
消防手 李龍昇 吳學五 韓學謙 李東允 崔守南 崔萬鎬 元永振 李東暐 洪永玉 金吉男 金正植 韓鳳晥
第二區長 小頭 金燦文
消防手 全興祚 姜鳳周 鄭實朝 金成奉 金大根 鄭洪國 金龍河 李昌植 金洪翊 李熙龍 趙益濟
第三區長 小頭 金泰淵
消防手 崔允煥 李廉在 朴基萬 李昌浩 金石桒 成四孫 高永根 朴命基 朴永倚 張在南 田應奎 金基先 金鼎龜

元山府北村洞 朝鮮水難救濟會 會長 尹相弼

元山驛前 郵便所長 韓光洙

元山府上里二洞二五 中外日報元山支局職員一同 電話九四七番

元山府中里三洞 金秉淯

元山府中里一洞 李澤鉉

元山府上里二洞 李秉均 電話一四〇番

元山府旭町二丁目一五 米穀商 金五鎭 電話七一九番

元山府場村洞二一九番地 穀物商 金桒福

元山府石隅洞一二九番地 海德商店 主 金德聖

元山府上市場 穀物貿易委托買賣 金柄洪 電話一〇四三番

元山府旭町 穀物貿易及委托 同大商店 電話一五八番

元山府海岸通二丁目 貿易商 崔夢悅

元山府銘石洞 麵子製造 米穀雜貨 物賣 張河天

元山府外內元山里 牛乳販賣業 金正模

元山府幸町二丁目 三友商會 電話七二二番

元山府海岸通三丁目八番地 米穀雜穀貿易商 金利錫商店 電話八三五番

元山府上洞一五五 綢緞布木 裁縫土產 石油並日 雜貨商 朴來華 電話二三一番 電信略號〇

元山府上洞一二一 布木商 宋子德 電話一〇二七番

元山府北村洞四八 新舊雜貨 布木裁縫 金榮夏支店

謹賀中年始缺禮 元山府廳 職員一同

謹賀中年始缺禮 元山警察署 職員一同

謹賀中年始缺禮 元山里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元山府南村洞七四 東洋釀酒所 主 康基炯

元山府上洞 元一釀酒所 電話一〇〇七番

德源郡赤田面風牛里八九 普合釀酒所 主 姜弘善

元山府銘石洞一二六 株式會社 合成釀酒所 電話五四七番

元山府銘石洞 改良藥酒 改良濁酒 改良燒酒 全興釀酒所 主 全用斌 電話五二八番

元山府南山洞一一八番地 板硝子 洋灰麵商 磁器類 金景五硝子店

元山府銘石洞 遂安麵屋 主 方承燮

元山府本町五丁目五九 海東旅館 主 朴承鍾

元山府旭町二丁目 食料販賣商 金重權 電話六〇二番

元山府石隅洞一七五 平壤食堂 主 林益洙

元山府橋下洞 飲食店 安一玉

톡기이야기(二)

◇京城帝國大學豫科 森爲三

四、『톡기』의 번식 『암톡기』가 색기를 배고 잇는 긔간은 삼십일 내외인데 『톡기』 젓으로 사람이 커올 때에 네마리의 색기 『톡기』를 길으면 백이어의(白耳種)종은 톡척게 일혹 후에 및 낫지 이 안든 종은 구개월 또는 십개월 전으로 히말라야 『종가』 큰것은 다섯달만에면 색기를 나키 시작합니다 색기 낫는 시효는 또한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잇스나 다섯마리로부터 만호면 열두마리까지 나며 따라서 수놈 마리에 암놈 여덟마리까지는 작을시어 주어도 관계치 안코 교미(交尾)할 때에는 『암톡기』를 『수톡기』의 우리에 옴겨누엇다가 교미를 한듯하면 다시 『암톡기』를 이전 우리로 가져옵니다 그 후 열흘쯤 지나 다시 『암톡기』를 『수톡기』의 우리에 너어두면 『암톡기』는 『수톡기』를 실혀하는데 이 가리 오는 것을 실혀하는 것은 색기를 밴 증거입니다 색기를 나키 몃칠 전에 우리를 깨끗이 하고 마른풀을 너어두면 『암톡기』는 이 풀을 가지고 몽수리를 만든 후에 색기를 낫습니다 이와 가티 한번에 오륙마리식 낫는 것을 일년에 두세번식 나음으로 그 번식되는 넝도는 실로 놀란 합니다 그러나 삼사년쯤 지나면 번식하는 힘이 적어 짐으로 젊은 『톡기』로 밧구어 노흔 것이 필요합니다 『새기톡기』는 난지 여섯주일가량이면 젓을 떼이고 그 후 삼사삭동안 한 우리에서 길으다가 『암놈』 『수놈』을 각각 다른 우리에 너어 먹이는 것이 편리합니다

五、『톡기』 먹이는 것을 장려함

우에 긔록함과 가티 톡기는 대단히 번식하는 힘이 세찰뿐 아니라 아름답고 유순하야 대단히 길으기가 쉬우며 또한 닭과 가티 그리 너른터면도 필요하지 안코 또한 돈도 그리 들지 안흐며 고기는 담박(淡泊)하야 소화하기가 쉽고 단백질이 가장 만히 포함되엇슬 뿐 아니라 그가 죽은 뒤 서양에서는 『웰트』 모자 만드는 데에 가장 만히 사용되고 그 외에 목도리, 장갑, 족기속, 외투ᄉ, 방석(敷物) 등에 넓히 사용됩니다 특별히 근래에 와서는 흰털에 여러가지 물을 드린 후 잘 외어 여가지고 거친털은 뽑은 후 상등모피라고 속이여 만히 파는데 례를 들면 흰털은 『후레첼미린』와 가티 보이어서 서양 부인들이 만히 사용합니다 거친털을 뽑고 염색을 한 것은 『온둘케(膃肭臍)』 가죽과 가티 속이어 『시노라인』 또는 『에레쿠토링쿠실』 이라고도 하고 또는 엇더한 것은 잘손질하야 『모구라』 가죽과 가티 만드러 『코니몰』 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 『톡기』의 가죽을 『깃노코니』 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 닭에 만히 나기만 하는 것가트면 얼마던지 서양에서는 사용합니다 이와 가티 고기는 식육에 덕당하고 가죽까지도 용도가 비상히 넓습니다 또한 그 외의 의학(醫學)상에서는 혈청시험(血淸試驗)과 병원균배양(病原菌培養) 등 실험재료로 엇지도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 뿐입니까 수염으로는 붓을 매고 똥은 거름에 쓰며 뼈나 리의 발뒤축에는 부드러운 털이 부터 잇는데 계상 마되를 잘라 분바르는 솔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六、『톡기』의 식물

매일 잡곡(雜穀) 엽파와 마른풀, 쿠로바 알팔파, 우마코샤) 등을 주는 외에 호배추 또는 나무의 새로 나는 움을 베여 주어도 좃습니다 그러나 이와 가튼 풀은 징싱한 것을 먹이어야 되고 물컷쉬 것이나 또는 뜬 것은 아주 조치 못합니다 매일 주는 도수는 아츰에는 풀이나 채소를 주고 저녁에는 곡식과 따뜻한 『보리질금』을 주고 풀가운데에는 포공영(蒲公英)의 입사귀 또는 색리 물이 되는 것이 조흔 때 포공영은 『톡기』의 식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톡기』에게는 약이 되는 것으로 잇다 틀주는 것이 좃습니다 이와 반대로 『호배추』는 색기 『톡기』에게 먹이면 해롭습니다 어른 『톡기』에게라도 마니 먹이면 해롭습니다 풀은 매일 아츰마다 주는데 저녁 곳에는 『톡기』가 풀을 먹고나면 곳 치우는 것이 조흐며 소곰은 곡식과 석거서 반주일에 두번 혹 세번 주며 또한 나무밥이나 부식물(副食物)을 줄 때에는 너무 소곰을 주지 안어도 관계치 안습니다 그 다음 젓 먹이는 『톡기』와 젓 떼러진 색기 『톡기』는 매일 따뜻한 『보리질금』을 먹이는 것이 대단히 조흐며 『톡기』를 식용에 쓰려고 먹일 때에는 생후 열주일을 지난 놈을 조그만 통에 너어 운동을 제한하고 풀을 조금 감하고 그 대신 곡식을 만히 주어 기름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에 긔록한 것은 여러가지 서적과 미국정부에서 출판한 것이오 내가 실험한 것은 안임으로 틀림이 만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편은 용서하여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참고되는 점이 잇스면 다행으로 역이겟습니다

한글 바보사자(二)

사자는 ×× 먹을 것이 차차 업서지매 나날이 심술이 놉허가고 버릇이 강포하야 집니다. 이 양주사슴은 일시도 마음을 놋치 못하고 사자를 피하야 다니느라고 여윈 몸이 더욱 여위어 다 죽게 되엿습니다. 하로는 암사슴이 기운없는 소리로

『아 귀것보아요 사자왕님의 호령ㅅ소리가 놀리네 아이고무서워라 나는 이왕 죽게되엿스니 당신이나 어데로 속히 피하야 목숨을 보존하시오』

『그런 소리 말고 기운을 차려오 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는이 잇소』 하며 암사슴의 귀에다 대고 무어라고 한참 소군거리더니 두양주가 붓어서서 길이 사자왕님 앞으로 찻음니다 배를 주리고 잇던 사자는 두마리의 사슴이 오는 것을 보더니 새기운이 나서 벌덕 닐어나 큰소리로 『어흥!』 하고 지르며 『요놈 괘씸한 놈 진작 와서 항복할 것이지 지금에야 아실랑와』

이 소리를 들으매 암사슴은 그만 혼이 나서 얼굴이 노래지옵니다 그러나 수사슴은 공순한 태도로 사자앞에 무릎을 꿀고 머리를 숙이어 예를 하면서 『황송하옵니다 사자왕님이시여 소인네들은 벌서부터 와서 뵈옵고 파암의 올릴 말슴이 잇섯읍니다 그리하야 오다가 중로에서 참 무서운 큰 사자 한 분이 숲속에서 나와서 눈을 부르뜨고 커이를 흘겨보시는 까닭에 간담이 서늘하야 큰 ᄭ까지 왓다가는 가고 왓다가는 가고 하기에 이같이 늦엇읍니다 가궁이 여기시어 용서하야 주십시오』

當選 쇠만흔톡기

二等 金玟權

톡기 이야기

녯날에도 녯날 압헤 큰 바다를 안고 잇는 경치 조흔 어느 산중에 쇠만흔 톡기 한마리가 잇섯드랍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산보나왓다가 불행이도 독수리에게 채여가게 되엿습니다 이 독수리의 집은 바다 건너 저편 산에 잇섯슴으로 독수리는 톡기를 차가지고 바다를 날아 건너가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길에 조고마한 섬 하나이 잇섯습니다 톡기는 살 쇠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 섬 우에 왓슬 때에 모래바테 놀고 잇는 거북을 보고 『여보게 거북 자네 거기서 무엇하는가』 하고 톡기는 말을 무럿습니다 거북은 처어다보고

『아 — 자네 톡기 아닌가 그런데 어데로 가는가?』 하고 물엇습니다 톡기는 시침을 뚝 떼고 『응 나는 독수리 실고 나라님금님께 진상하려 가는 길일세』 하엿습니다 이 말을 드른 독수리는 『야 — 이놈 보아라 나를 나라님금님께 바치려 간다고? 에부서!』 하고는 얼른 톡기를 노와버렷습니다 톡기는 『올타구나 인제는 살앗다』 하며 부드러운 모래 우에 살분 떠러젓습니다 인제는 목숨은 구햇지만은 섬은 뭍과 달라서 먹을 것이 업서서 곤난햇습니다 그래서 생선 먹어보지도 못하얏든 생선 먹기를 배웟습니다 그리하야 멋집안되는 어부의 집을 도라다니며 굴이나 생선가튼 것을 도적해먹기 시작햇습니다 그러나 몃칠이 못가서 어부의 눈에 뜨엿슴으로 어부들은 의론하고 톡기 다니는 길에 그물을 처두엇습니다 이런줄은 꿈에도 생각지 아니한 톡기는 매일과 가티 서슴지 안코 가다가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마럿습니다 『야! 인제는 꼭 죽엇구나』 하고 걱정하든 차에 마츰 쉬파리 한마리가 『왕앙』 하며 나라갓습니다 이것을 본 톡기는 곳 쉬파리를 불러세우고 말을 부칫습니다

『네 관절 네가 떠들고 단이지만은 네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잇단말인가? 몸뚱이가 남만치 크단말인가 수효(數)가 남만치 만탄말인가 설령 너희들의 수가 만타하드래도 내 털(毛)의 수효만은 못하리라』 하고 쉬파리를 조롱햇습니다 성질이 팔팔한 쉬파리는 톡기의 모욕에 분이나서 『가만잇거라 그러면 우리 동무를 다리고 올테니 네 털수효와 우리 동무 수효가 어느 것이 만은가 어듸 비교해보자』 하며 훨 날아가 버렷습니다

조곰 지낸 뒤에 그 섬안에 잇는 쉬파리란 쉬파리는 다 모와드렷습니다 톡기는 시침을 떼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털 하나에 한마리식 옴겨보아라!』 하얏습니다 말이 채 떠러지기도 전에 쉬파리는 톡기의 온몸을 덥허쌋습니다

그런커럭 아츰이 되며 그물을 친 어부는 허둥지둥 왓습니다 톡기는 어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죽은듯이 사지를 쭉 뻣고 누어 숨을 꿍구멍으로도 쉬지 안엇습니다 어부는 톡기가 걸리기는 걸렷는데 벌서 죽어서 썩어 쉬파리가 안존줄만 알엇습니다 그래도 아죽 『그대지 썩지는 안햇나』 하고 코를 대고 싱긋싱긋 마를적에 톡기는 살그먼히 도토리 방귀를 한방 소리도 안내이고 뀌엇습니다 어부는 감쪽가티 속아서 『엑쿠 썩엇』 하며 집어서 강변 모래우에 던져버렷습니다 톡기는 『올탓구나』 하며 껑충껑충 뛰여 다라낫습니다

살기는 살앗스나 암만해도 이 섬안에서 더 살기는 위태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인제는 본고향인 륙디로 나갈 꾀를 궁리햇습니다 그리해서 고향에 가고십흔 간절한 마음으로 바다가에 나왓스나 엇지면 조켓다는 신긔한 생각은 안나고 가슴만 태우고 잇슬지음에 마츰 따뜻한 날이라 게(蟹)한마리가 나와서 물우에 둥둥 떠서 놀고 잇섯습니다 그래서 톡기는 다시 게를 조롱하게 되엇습니다

『게야! 너희들이 암만 수효가 만타하드래도 한마리식 한마리식 나란히 세워 일렬을 만드러 노튼대도 이 섬에서 저 륙디에까지는 모자라겟지?』 하며 가장 비웃는 태도를 보혓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게는 성나는 것을 못참아 엄지발가락을 벌이고

『무엇이엇커고엇전다 고 말보다 실지가 제일이다』 하며 곳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게를 만히 다리고 나와 정각간에 이편에서 저편 륙디까지 죽 — 느러섯습니다 톡기는 감심한 듯이 『야! 참 만키는 만쿠나!』 하며 이러케 한번 칭찬한 뒤에 『자 — 이왕 느러선 김에 멋마리나 되나 한번 헤여나 보잣구나』 하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모양으로 헤아리며 게의 등을 밟아 륙디에 건너왓습니다 그리하야 정다운 고향에 다시 도라왓답니다

童話 쇠꼬리와나뷔 (二)

小波 方定煥

쇠꼬리는 그냥 작구 노래를 불럿습니다

밤문을 열고 내여다보는 사람은 업든 동네뒤에 이미 보이는 얌전한 소녀엿습니다 쇠꼬리와 나븨가 나란히 안저 ᄂ 것을 보고 몹시도 반가와 하며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나 맛난듯이 깃버서 엇지 할지를 모르며 사람에게 하는 말가티

『아이그 고마워라 쇠꼬리도 나븨도 왓구면…… 민수가 엇더케 너의들을 보고십허 햇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민수가 보게 방에까지 들어왓스면 조흘련만……』 하엿습니다

나븨와 쇠꼬리는 후루루 날러서 방으로 들어갓습니다

방이래야 좁다란 한간방인데 아홉살 먹은 어린산아이가 말르고 파ー란 얼굴에 눈을 감고 누어서 잠이 든 것 갓기도 하고 죽은 것 갓기도 하엿습니다

『민수야 눈을 떠보아라 쇠꼬리와 나븨가 왓다』 하면서 소녀는 동생을 보드럽게 흔들어서 깨엿습니다

쇠꼬리는 목소리를 곱게 내여 자미잇고 씩씩하게

『쇠꼴 쇠꼴 쇠꼴꼴……』 하고 노래를 정성껏 불럿습니다 나븨는 그 노래에 장단을 마쳐서 재조잇고 화려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병든 어린이의 자리를 빙빙 돌앗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업는 훌륭한 음악(音樂)이요 희한한 무도(舞蹈)엿습니다

거슴프레하게 떠진 병든 소년의 두 눈은 점점 크게 떠지면서 생긔가 나면서 춤추며 돌아다니는 나븨를 따르고 귀는 아름다운 쇠꼬리의 노래소리를 정성스럽게 듯고 잇섯습니다

쇠꼬리와 나븨는 열심으로 열심으로 재조와 정성을 다하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엇습니다

그리는 동안 병든 소년의 눈은 점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파ー란 얼굴에는 붉은 혈긔가 점점 돌아오더니 이윽고는 긴 동안을 이지나도록 한번도 보지 못한 우숨의 빗이 그의 눈에도 입에도 보히기 시작하엿습니다

그것을 보고 쇠꼬리와 나븨는 귀운것 귀운것 피곤하기까지 노래와 춤을 추엇습니다

그날 밤에는 소녀의 따뜻한 주선으로 그 집 처마 동백나무 그늘에 자고 그 이튼날도 또 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엿습니다

어린이의 병은 차차 나아지고 귀운과 정신이 나날이 새로워졋습니다

나븨와 쇠꼬리는 그 이튼날도 또 그 이튼날도 쉬지 안코 노래와 춤으로 병든 소년을 위로하엿습니다

이러케 일혜 동안을 지나자 소년은 아조 쾌하게 병이 나어서 누나의 손을 잡고 동산에도 가고 뜰에도 가서 쇠꼬리와 나븨와 자미잇게 뛰놀 수 잇게 되엿습니다

새해맛는멍텅구리 (三)

화국녀왕

내각조직 (1)

옥매!옥매 (2)

쉐고보니담 (3)

魂

—(나의詩)—

金海剛

바위ㅅ돌에 눌려
머리를 들지못하고 우는
고달픈 령혼들은
내가슴을 울리나니
그가슴을 썩아
눈물도 쉬노흔것이
나의詩란다 압흔詩란다

◇

都市에서 몰리고
農村에서 쏫기는
그들의 애닯음은
내가슴을 뛰게하나니
염통에 나는불ㅅ길을
쏘다노흔것이
나의詩란다 불타는詩란다

◇

귀를기우리면
地心의鼓動이 들리우고
눈을 뜨면
별들우에 빗치보히나니
이것을 소리치며 노래하는것이
나의산詩란다 빗나는詩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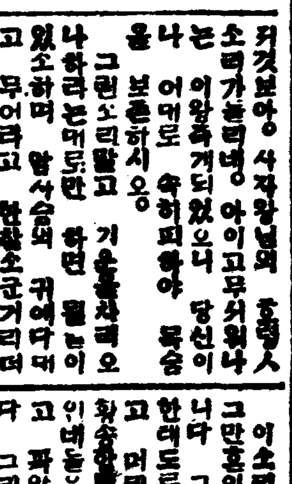
◇

썩미테 흐르는 흐름
염통에 움죽이는 힘
일어슨 힘줄
이것들을 쓰게하는 나로하야
詩를 힘이란다 비컨이란다 망식
이란다

◇

詩를쓰는 나의魂아
빗날ㅅ로 빗나라
거룩한詩는
빗나는魂이 ……나흘것이니
(끗)

키일흔帆船 (四)



李益相 作 李靑田 畵

동에서 서으로 서에서 다시 북으로 진주시가의 압과 켜트로 그ㅅ자를 그리고 흘러가는 서편내ㅅ물을 건너고 다시 수백년이나 묵어 부어 흔 정자나무가 총총히 들어선 다가공원(多佳公園)을 지나고 또 다시 나즉한 고개(峙)를 넘오면 그곳에는 벼호나 되는 한 동리가 잇다

이동리에는 야소교신자가 만히 살엇다 일촌이 거의 야소교도라고 할수잇섯다 그리하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노래소리와 찬송하는 긔도소리가 은처지 안햇다

이동리 북편산 및 조금 놉흔 곳에 정한 초가한채가 잇스니 이집은 사오간 밧게 아니되는 적은 집이엇다 그리고 그 집뒤에는 송림(松林)이 잇다

이집 주인은 녀자강연회가 열리던 날 밤에 몽모와 언쟁을 하다가 손을 제가스스로 다친 김이란 청년의 집이다 그이의 본명은 창호(昌浩)라 하엿고 아호(雅號)는 현대문인(現代文人)식으로 고범(孤帆)이라 하엿다 그리하야 김창호라는 원홈보다 김고범이란 아호가 근일에와서는 자긔동무들 사이에 더잘 통용되엿다 이고범이란 아호에 대하여서는 그의동무들의 리도 여러가지 의론이 만하엿다 너무나 『센티멘탈』하다는 이도 잇섯고 너무나 『로만틱』하다는 이도 잇섯다 창호는 이고범이란 것은 자긔의 한평생을 상징화(象徵化)한 것이라 하야 스사로 찬미하여왓섯다 그의 생각은 인생이란 것은 결국 크다란 바다를 건너가는 한조각배나 다름업다 하엿다 그리하야 조흔 바람을 만난 배는 목뎍디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오 그러치 못하면 표박(漂泊)도 되고 난파(難破)도 되는 것이라 하엿다 그는 이와가튼 간단한 운명관(運命觀)을 가지고 잇섯다 이세상 여러운명의 배가운데에도 자긔의 것은 가장 외로움다 하엿다 그리하야 커음에는 고주(孤舟)라 하얏다가 그 고주라는 것이 조치 못하다 하야 고범이라 한 것이엇다 그러고 그가 원하는 작품도 대개는 고뎐뎍(古典的)인 것보다는 『로맨틱』한 것, 사실뎍(寫實的)인 것보다는 리상뎍(理想的) 신비뎍(神秘的) 상징뎍(象徵的)인 것이엇다 그럼으로 그가 배양다른 사소단데의 청년들과 돈경회에나 또는 문학을 조화하는 다른 동지들과 말잇에도 의견충돌이 만핫섯다 그리하야 강연회 열리던 밤에 이러난 충돌도 말하자면 필시 자연한 결과라고 할수잇섯다

손을 다쳐던 그이 흔녀아칠이다

그는 밤이 깁도록 마음이 넘우나 흥분하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되야 잠간 조울뜻한 잠을 자고 이러날 때에는 벌서 아츰해가 동편창에 비치이고 뒷산 어는 먹이를 찻는 가마귀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엇다 사나운 바람이 지나간 바다처럼 그의 머리는 안정을 어들 못하면서도 역시 안정이 되지 못하엿다 이것은 그전날 밤에 생긴 일이 마음에 생각되는 까닭이다 문화청년, 강연회, 파회, 피흘린 손, 녀변사, 피로 물들인 석다, 손을 동여주던 보드러운 손 — 이모든 것이 두서업시 잇키어 생각에 떠올랏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반듯이 이르키엇다 뒤에 내집흔 손은 그전날밤에 다친 손이엇다。 따뜻한 살이 어름에 다흔 것처럼 스뜻하며 바늘로 쏙 찔리는 것가티 압헛다 그는 압흔 팔을 압호로 집헛다

『옵바! 이러낫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창호의 누의 인순(仁順)이엇다

映畵印象

조선안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을 모집합니다 「활동팬」 여러분 혼의 만투고를 비랍니다

◇『표박의인』(조국)으로 주케가 『러브 스토리』이건 마음 『판』에게 「쇼크」를 준다 이 정의 고민한 것을 잘 표현한 영화이다 (H生)

◇더우 국락(조국) 로동계급과 자본계급의 생활을 대조한 영화이다 좀더 심각한 영화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정신이 긴장하엿더니 결국은 판에 박은듯한 『하피엔딩』으로 병이 들고 말엇다 중국자본가의 주구노서 성공을 하고 말엇다 불만한 점이 여긔에 잇다 (一無産靑年)

◇天氣豫報

◇溫度 三日 正午 三六、九
◇比較 二日 最低 二二、七
◇日出前七時四七 晝間九時三三九
◇日入後五時二六 夜間十四時二一

分立에서統一에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동무들아! 우리의 環境을 누가 지엇는가? 오직 우리는 公事에서 私利를 圖하고 公職에서 私鬪를 敢行한 罪가 今日 우리의 慘運을 招하엿는데 에 可뿐한 原因을 지엇다는 것은 嚴敬히 말할 必要가 업다 그리하야 이것을 肯定하면서도 在來의 腐敗하여 오든 醜態한 情性은 今日까지 蔓延되야서 全族體를 分散케하고 團結을 妨害하여 擧據에 處한 大衆의 運命에 高壓力을 增加한다

◇동무들아! 우리의 모든 環境은 우리가 지은 것이다 그럼으로 現在의 모든 環境을 打破하는 데는 또한 우리 스스로의 努力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絶望에 呻吟하고 慘痛에 憔悴하는 우리가 眞一努力이 업다면 엇지 未來를 바랄가? 未來는 靑年의 것이라고 뭇스는 하엿다

◇동무들아! 적어도 社會運動者라고 自任하고 覺悟를 가진 以上에는 우리 自身부터 在來의 모든 惡習性을 根本的으로 打破하고 公正博愛의 人間性을 가지지 안어서는 안될 것이다 社會運動은 個人 또는 團體의 榮譽와 權勢를 企圖하기 爲하야 發展된 社會運動이 아니다 적어도 正義的 感情에서 犧牲的 精神에서 胚胎되고 熾烈하여진 社會運動이다 同一한 目標로 가는 … 團體에 立한 우리는 決코 … 하고 平和의 氣分이 濃厚하여 갈 것은 理論上에 잇서서 … 事實上에 잇서서는 지그럿치 안흐면 안될 것이다

◇동무들아! 우리는 分立으로 보다 統一로 가자! 時機는 到來하엿다 우리의 目標가 그 무엇이가? 財物인가? 權勢인가? 동무들아! 엇지 敵陣을 맛나기 前에 自家의 限을 이르켜 敗北의 途를 取하려는가? 그리하여 漁父의 利만을 줄 것인가? 正義의 우렁찬 소리는 들린다 때는 왓다 大衆은 기달린다 起하라 猛烈하라 團結한 秋爭으로 神聖한 社會運動을 開拓치 말고 分立으로 統一로! 그리하야 運動戰線을 統一하자! 후로 同志야! (具綠雲)

三陟某自動車部 通行客弄絡一手

一般非難이날로藉藉

江原道三陟某自動車會社自動車는行人에게『야로』하기를非一非再라는바그內容을들으즉警笛도用意하지안코自動車의『시웃치』를단코가만가만히運轉하다가村사람이나婦女子의뒤에다닥아서면突然히發動을식혀驚駭騷動함을滋味잇게각생함뿐아니라甚한者는絕壁斜路입에도不拘하고以上과가튼作亂을濫行함으로一般의非難이놉다더라(三陟)

東京學友 緊急委員會

諸般事項討議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에서는去廿六日午後三時부터府下戶塚町에서緊急委員會를朴亮根氏司會下에開催하고미리부터準備하여오든定期總會及忘年會는集會禁止로因하야中止치아니치못하게됨으로此에對한善後策을討議한後同六時에閉會하엿는데모든것은朴亮根氏에게一任하고定期總會는時日이延期되나本月中旬頃에는開催케되리라더라(東京)

東京湖南 學生委員會

去月二十六日開催

在日本東京湖南留學生親睦會에서는去月二十六日午後七時부터市內小石川區柳町에서緊急委員會를朴亮根氏司會下에開催하고忘年會中止及其他重要事項을決議하고同九時에閉會하엿는데忘年會外지發行하라든會誌는集會禁止로因하야一月下旬頃卒業生祝賀會석에나分配케되리라더라(東京)

穩城運動 團體數

靑少年各九

咸北穩城郡內靑年運動及少年運動에活動하는團體數는如左하다더라(穩城)

▲靑年團體 ▲穩城靑年會▲普新靑年會▲上和靑年會▲南陽靑年會▲穩城同友同盟▲農產靑年會▲覺醒同進會▲農友會▲精米組合

▲少年團體 ▲穩城少年會▲鶴正少年會▲少年相愛會▲少年農友會▲月坡少年會▲光東少年會▲永忠少年會▲訓戒少年會▲少年農友會

全州社會團 聯合懇談會禁止

全州靑年會主催로丁卯一月三日에在全州各社會團體聯合으로新年懇談會를開催하고新年度運動에關한方針을討究하기로하엿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去二日에至하야警察署로부터各自가…

高敞少年奮起

警察의無理한取締로

高敞少年會에서는去二十八日高敞警察署司法係에서遺失物拾得嫌疑로監行審問을無理히本會員吳春錫『三』에게하야어린身體를負傷케하엿슴을憤慨하야對策講究키로客月三十日下午一時高敞靑年會舘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엿다더라(高敞)

尙州消組 日人幹部總辭

慶北尙州消防組에서는日人組頭蒲生의橫暴로紛糾가잇섯스나組頭日本人蒲生의辭職으로因하야問題가解決되엇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其後蒲生組頭辭職을뒤하야日本人幹部諸氏南條,山口等諸氏外組員小田等멧사람外지結束하야所謂蒲生一派는總辭職하엿슴으로其後任者를人選中에잇는데當分間後任者任命前에는久野保安係主任이此에代하야消防出初式等을總指揮하리라더라(尙州)

芙江擲柶大會

本報支局主催

今般本報芙江支局에서는新年勞頭의娛樂的擲柶大會를本支局主催로一月六日에市內黃成泰家에서開催한다는데一般은多數參加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芙江)

會費 每人一圓五十錢式

申込期間 自一月一日 至一月五日

賞品 一等 掛鐘一個 二等 毛布一件 三等 洋襪一打 四等 內衣一件

竹山共組定總

將來前途多望

安城郡竹山市場에잇는竹山共濟組合에서는豫定과가티去月二十八日午後四時에第一回定期總會를開催하엿는데役員諸氏의熱烈한努力으로例外의成績을냇다는바結果滿場의景氣는隆盛하야同組合이將次竹山金融界에偉大한效果를表現하리라더라(竹山)

三水郡에 新巨靑年創立

三水郡別東面新巨里靑年有志는當地에靑年의集團機關이업슴을恒常遺憾히녀기든바얼마前에當地有志金東鉉氏外여러사람의發起로新巨靑年修養會를組織하엿는데該會의委員은如左하다더라(三水)

▲會長金東鉉▲副會長申鍾秀▲庶務部長柳七▲會計部長金昌鏞▲

嶺西記者團發起

一月中創立總會開催

江原道北部五郡(鐵原、金化、平康、利川、淮陽)에散在한朝鮮文新聞雜誌支分局들網羅하야同職者間의統一과親善의目的으로嶺西記者團을組織코저客月三十日에東亞日報平康支局에서發起總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月中에創立總會開催의件

金學弼氏敎育熱

黃海道長淵郡大靑島金學弼氏(五四)는本是大靑島出生으로育英事業에만히盡力하든바大正十年度에도島民有志諸氏와協議한後義捐金三千圓을收納하야大靑義塾이란改良書堂을設하고島民子女百餘名을募集하야時代에適合한學問을敎授하든中學弼氏는滿五年間이나校主兼財務로잇든바學校財產을增殖시킬方法을講究努力하든中現金八千圓을準備하야今年三月에普通學校認可를得하야敎室과設備를整頓中인바數日前에島民千餘名과學校生徒百三十餘名이金學弼氏私宅에會集하야金氏의偉大한敎育熱과島民에對한誠意를永遠紀念키爲하야現價百五十圓價値의金盃紀念品을滿場歡樂裡에授與하엿다

各地의夜學狀態

文盲打破부르짓고 創立! 復活! 發展!

寶浦少年會 統營夜學 四個所

咸南北靑星岱面寶浦少年會에서는農閑期를利用하야左와如히夜學을開設하고會員이分擔敎授中이라더라

下寶浦夜學 은客年十一月一日부터開學한바生徒數二十餘名에先生은崔永龍崔浩春兩氏이며

三介洞夜學 은去十一月一日設置한바生徒數十五名에先生은崔俊極全七國兩氏이며

香隅村夜學 은去十一月一日設置한바生徒數十五名에先生은崔元弼氏이며

島內村夜學 은去十一月一

松亭勞夜好績 校舍新築計劃

江陵郡江陵面有志松亭里靑年金振容氏外諸氏의發起로三年前에無產兒童을爲하야勞働夜學을設置하고熱心敎授하야오든바다시里有力者諸氏는網羅하야各責任을完全한機關을만들기爲하야洞約을맛기는同時에義捐金을募集하야基本金을삼고生徒는每日增至하야現在四十餘名에達하야남의집을三間이나빌엇스나都是收用키不能함으로또一處에增設코자準備에奔忙中이며不遠間에校舍新築도着手하리라는데本演里에잇는興風會에서도이를贊成하고만흔義捐이잇스리라더라(江陵)

日設置한바生徒數二十名이오先生은董致厚氏인바各夜學의科目은農業書類算術朝鮮語地理歷史作文習字等이라더라(三岐)

龍川北中面 留學生定總

客月廿九日進堂齋에서

龍川郡北中面留學生會에서는客月廿九日午後一時에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코저當地元松洞敎會堂을交涉하여오든바敎會當局者로부터基督敎憲法에依하야빌려줄수업다함으로不得已進堂齋에會集하야過去學窓所感과忘年所感이잇슨後北中學校期成會促進의件에對하야討議하고同三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龍岩浦)

…部長姜炳鎬▲…育部長姜錫甲▲評議長朴晟鍾

安岳金組評議會

黃海道安岳金融組合에서는去二十八日에同組合事務室에서評議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討議하엿더라(安岳)

忠南吳地主特志

忠南公州郡新上面…里에居住하는吳允根氏는每年秋收빗百石하는土地를去年水害로因하야二百餘斗落이全部破損되어改畓할餘地가업시된土地를다만불상한小作人을爲하야損害도생각지안코去年八月頃부터防築修繕과改畓에着手하야今年봄부터는近洞小作人側에一大福音이되게되엇는데右氏는將來同里貧民을爲하야永遠히小作權을준다고宣言까지하엿슴으로一般小作人側에서는右氏의特志를稱頌한다더라(公州)

豐山洪氏夫婦의篤志

咸南豐山邑安興商店主人洪淳獻氏는本來海州出生으로十年前에當地에來住하며商業을經營하는바多少의資金을貯蓄하엿스나無理한暴利를不取함으로商業上取引이第一頻繁한데氏는家族全部가耶蘇의信者임으로博愛의心이豐富하야無依獨存의人을見하면恒常同情의淚를禁치못하든바去冬至日酷寒에四顧無親한孟氏婦人(七十二歲)이惡氣에不堪함을見한洪氏夫人은亦是其夫의慈善心을贊助하야多衣上下全部를新裁하야無價로주엇슴으로孟氏婦人은勿論이오一般人士들은稱頌이藉藉하다더라(豐山)

淸進復興懇談會

오래동안沈默을직히여아모소리업시寂寞하든淸州社會의一般靑年들은新年에淸州靑年會를復興식히려고善後策을講究키爲하야新年懇談會를開한다는바一般靑年은多數來參키를바란다더라(淸州)

金泉魚小商親睦會

金泉魚市場에는百餘名小賣商이잇스나何等聯絡機關이업스며따라서互相間不便한點이만흠으로이를遺憾으로생각한有志數氏는客月十九日午後九時魚市場金炯一氏倉庫에서四十餘名小賣商이會集하야金秉道氏司會下에議事를進行하엿는데金泉各團體에서來賓金榮徐君의熱烈한祝辭와朗讀과來賓祝辭가잇섯스며規則通過任員選擧를마친후十一時頃에萬歲三唱으로無事閉會하엿다하며選擧된任員은다음과갓다고(金泉)

◇委員氏名
金秉道 白守仁 金石峯 李成道 金重九 金吉贊 黃鳳守 金安淑 黃泰成

轉換期에臨한 朝鮮社會運動槪觀(二)

—過去一年間의回顧—

燕京學人

…部分的運動에서全體的運動으로…
…觀念的運動에서現實的運動으로…
…自然生長的에서目的意識的으로…

五

朝鮮無産階級運動의統一問題와組織問題—즉紛糾中에잇는運動線을如何히統一하여야하며階級的總力量을如何한形態로集中식히어야할가? 總機關의組織은如何히하여야하며 前衛의結成을如何한形態로하여야할가?—이것이 一九二六年의朝鮮社會運動者에게提出한 가장重大한問題임은勿論이다 그러나同時에우리에게는 이보다도더욱重大한死活問題가提出되어잇다 그것은즉 所謂『朝鮮運動의方向轉換問題』이다 運動의現實化問題요 政治運動問題요 民族主義者提携問題다

運動의現實化에對하야 勞總聲明書는『勞働組合은決코思想團體가아니다 그運動은어데까지든지大衆自體의經濟的鬪爭을主로하는組合運動이다 그러커늘 우리在來의組合運動에는多量의 思想運動的性質을混合하여왓나니 勞農大衆은少數의所謂先覺分子의 抽象的思想的指導下에서 方今엇지할바를모르고잇다 大體에잇서서 現實的具體的日常運動은 無價値視되고 긔싼所謂『節慨主義』가高調되어왓다

그指導精神을 今後依然히

밧들고 잇을것가트면 그것은分明히過誤를犯하는것이니……故로우리는 在來의抽象的인사을더욱現實化하고 在來의消極的政策을 더욱 消極化하야眞實한 大衆運動을 展開하려한다』하엿고 正友會宣言도『우리는우리自體의從來의모든小兒病的症勢는揚棄하고 우리의勝利로의具體的前進을爲하야 現實的모든可能의條件을 充分히利用치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大衆의 改良的利益을爲하여서도 從來의消極的態度를버리고 奮然히싸와야할것이다……우리는運動의現在를代表하는同時에 또未來도代表하여야한다 妥協과格鬪를分離식혀서는아니되며 改良과××을對立식혀서는아니될것이라』하엿다 이에對하야 서울靑年會의決議文은『그의理論的價値를尊重하고『主張의大體를原則的인點에서承認은하지만 그러나대개이러한飛躍的形態의新政策을實行함에는 무엇보담도그에必要한程度의大衆的의 모든準備條件의成熟을要件으로하는者이다 朝鮮의社會運動은 自今의狀態로보아 이러한모든基礎條件에缺如하엿다 고볼수잇다 該宣言이主張한바와가튼 大膽한飛躍的形態의新政策의即刻實行은 朝鮮과가티 大衆自體의階級的成熟이薄弱하고 其他客觀的諸條件이未熟한現實에잇서서는

大衆運動自體에絕大危險을

隨伴하는者이다 우리는 우리의보는바朝鮮目今의狀態와情勢에비초여 이러한大膽한方向의即刻轉變은 크게考慮할바이라는것을高調하는者이라』하야時期尙早를主張하엿고 無産靑年會의決議文은『解放을要求하는一民族의또는一國의 全階級運動의方向轉換은 一民族이나階級의利害關係로만決定되어서는아니된다 그것은반드시無産階級運動의世界的政策에從屬되여決定될問題가된다 그런데只今中國의國民解放運動은 着着奏効하게되엿다 이運動의成功은直接間接으로 從來의그偉大를××하든東洋의××에對하야重大한××을줄것이다 이러한時機에臨하야 朝鮮의無産階級運動은 非妥協的運動이 民族的의 또는階級的解放運動에 가장有効한戰術이되는것을 알어야한다……그리고 非妥協的大衆運動은물이며 그組織과敎育은 一層深刻한鬪爭우에서 獲得케할것이라』하야 非妥協的精神을高調하엿다 또前進會檢討文은『現實化한다는말은 즉現實과妥協한다는말이니 그것은墮落과屈服이되는것이다……우리는現實化하지말고 즉現實과妥協하지말고 다시現實과鬪爭하여야하며 現實을征服하여야할것이다……妥協과抗鬪를分離식혀서는아니되며 改良과××을對立식혀서는아니될것이라는말은 結局그意味가 妥協運動을하여야되는말이며 改良運動을하여야된다는말에 쇠치고만다 그러면그것은……極端의妥協思想論이며 極端의改良主義論이라한다……다시말하면 妥協的改良的勢力과 抗爭的××的勢力과는 必然的으로對立되는것이지만은 妥協的改良的勢力이擡頭할때에는抗爭的××的立場으로서는 될수잇는데까지 그것을 分離식히며 對立식혀야된다 그러치아니하고 兩個勢力이混同된結果는必然의勢로 抗爭은妥協化되며××은改良化되는것이라』하야 運動의現實化를『改良主義的右傾』이요『正友會로서의變節』이라하엿다

政治運動에對하여는主張이

더욱區區하다 正友會宣言은民族主義的勢力의擡頭로因하야展開되는 政治運動의 傾向에對하여는 그것이한必然的過程의形勢인以上 우리는泛然히 對岸視할수업다 아니 그보다도從來의局限되어잇든經濟的鬪爭의形態로부터 그보다도一層階級的이며大衆的이며意識的인政治的形態로飛躍하지아니하면아니될 轉換期에達한것이라』하엿고 一月會解體宣言은『우리는現實에잇서서 世界無産階級의모든要素와朝鮮特殊의鬪爭諸要素를結合하야 思想運動의領域을未脫한우리經濟鬪爭을政治的鬪爭으로轉換식히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大衆運動은政治的鬪爭期에잇서서 비로소그眞正한意味를가지게되는것이라』하엿다 勞總聲明書는『階級對階級의運動은 本質上政治運動이니 政治運動을否認하는階級運動은 原始形態의運動임을免할수업는것이다 故로우리는從來의態度를反省하야 政治運動을긔認하는同時에 勞農大衆에게政府의意識을喚起함으로써 當面한大衆運動의하나를삼는다 그리하야 朝鮮에잇서서 次展開될政治的舞臺에組合員으로하여금積極的으로參加케하야 勞農大衆의政治上部分的利益될지라도 그것을利用하는것이조흘줄안다』하엿고 洪起文氏는『우리는 民族的究竟問題를잇지안는同時에 다시現實에나아가 보담以上으로도改善을許諾하는限에까지 改善을支辨치안하면안된다 우리가決코

左翼的理論 拘泥者가아닌

以上 맑스主義的妥協을밟바가기에주커치안흘줄안다』하엿다 이에對하야無産靑年會의決議文은『朝鮮에잇서 民族主義的勢力의擡頭 또는그것으로因하야擡頭되는政治運動의傾向이라는것은 大體어떠한現狀을指稱하는것이냐……이러한運動의成長할合法的可能한範圍를그運動의性質上究極 近來種種의風說을傳播하는 自治運動의形態에이를것이다……(그런데)……將來設或朝鮮에自治와가튼것이可能할時機가잇드래도 그것은 自治運動者의運動으로 獲得될것이되지안코 돌이어그反對運動이 이러한時機를促進할것이고 ……日本의普選이 實施되고自治權賦與의聲明이 잇다드라도(朝鮮)中產階級的民族運動의本流는依然히 그從來의非妥協的經路를不變할것이고……朝鮮의無產階級運動은 自主國의그것과가치 어느程度의經濟的鬪爭의過程을밟고 그러한뒤에비로소 目的意識的運動을이르키게되는것이아니라 그出發의第一步에서벌서 充分한政治的意識을胚胎하엿고……그럼으로우리는비록 强要된不利의條件下에서라도 오히려어느程度의大衆的組織과敎育이可能한것을밟고 (現)時期에處하야 朝鮮의無產階級運動은 非妥協的運動이 民族的의또는階級的解放運動에 가장有効할戰術이되는것을 알어야한다』하야 그를反對하는同時에『階級的黨의組織』과『非妥協的意識의鼓吹』를 主張하엿고 前進會檢討文은『目今朝鮮의政治的現實에잇서서 만일公然한政治的運動이잇다고하면 그는반드시 消極的墮落的인政治運動(普選延長 議會特設 內政獨立 半自治運動等)밧게는잇슬수업는것이明若觀火한事實이다……(그런데)……그러한政治的運動은 帝國主義勢力을養弱케하는運動이되지못하고 도리어

帝國主義勢力 發展의方便을

補助하는運動이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被壓迫民族의民族主義的政治運動이되지못하고 도리혀帝國主義走狗的運動 反運動 反××運動이되는것이다……또한그러한軟弱的卑屈的의政治運動이强權의擁護미테서一時的歷機의氣勢는 能할지언정大衆의날카로운光芒은決코그러한幻影으로도하여금持續을許치아니할것이다 (또)或은議會設置運動 自治論主張等으로써 殖民地를半殖民地에引上식히어自主的解放에到達케하는 한階段的運動이라고말할것이다

에 잇는 평안자동차주식회사(平安自動車株式會社)지배
해고된다섯명의운전수들은요
전에권리목수지배인을배척하
놋고 그와가티 해고하것이라
하기착이업는모양이다
목하더니
덕천군덕천면사문시(德川郡德川面沙德市)
의생면허장(免許狀)을압수하
열쇠를 장거두지안은것이 한
찰관주재소부근에거주하는사
로자실하얏다고

仁川
旅行中임으로年末年始의禮를缺하나이다
仁川府內里二〇三番地 朴昌漢

富川郡富內面富平里 趙龍培

富川郡富內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川郡桂陽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川郡吾丁面事務所 職員一同

仁川府內里 朝鮮日報仁川支局 電話九五四番
朴昌漢 崔鼎圭 成晉夏 宋萬基 金根薰 洪致道 吳義善 光天

江華郡吉祥面公立普通學校 訓導 朴憲秉

江華邑川橋上 綢緞布木和洋雜貨商 兪錫禎

江華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華郡廳 職員一同

江華郡府內面官廳里四五五 司法代書人 金潤豐

江華郡溫水里市場 綢緞布木 雜貨其他 金永植商店

江華府內新門里三一九 吳商燮

江華郡府內面新門里 旅館 主 趙昌煥

江華邑內新門里一四一番地 中華料理 復和園 主 孫竹齡

仁川煙草元賣捌組合 江華營業所 江華郡府內面官廳里

江華邑新門里 靑山醫院長 尹寅赫

江華邑內 崔秉欽

江華郡邑南門外 染料商 寶信洋行 李根昌

仁川府龍岡町二五番地 鄭翼謨商店

仁川府龍里二三八 乾麵製造所 金永玉

仁川府栗木里三八番地 林泰陽

江華邑內 琴中基

江華郡府內面官廳里 江一旅館 主 申東弼

仁川府龍里 仁川醫院 尹鎭國

仁川府龍里一七七番地 齒科 口腔外科 順天堂醫院

仁川府龍里 平和醫院 醫師 羅時極

仁川府支那町四九番地 米穀商 柳建燮

仁川府外里 美術的家具及建築諸負 木造物製作所 主 方駿容

仁川府栗木里一九番地 李昌煥

仁川府外里二三〇番地 李於興 長電話五五七番

仁川府松林里二〇八番地 鄭鎭壽

仁川府外里 洋靴經濟靴製造元 東仁舍 主 李東皓

仁川府新町四二番地 鳥獸肉卸小賣 牛豚鷄類 寶卵 害物 元泰舍 電話八七二番 電略(ゲン)又ハ(タイ)

仁川府內里 永化普通學校

仁川府牛角里 永化女子普通學校

仁川府內里二〇七 紙物書籍文房具並活版印刷 二林商會 電話一〇二八 振替京七五五三番

仁川府花町一丁目一番地 朝鮮中華料理 永興園 主 金明鎬

仁川府龍岡町五八番地 酒類醸造業 孔錫龍

仁川府龍岡町七八番地 海陸物産 委托賣買 客主 永誠號 玄在東 安玉淳

仁川府寺町二七番地 海陸物産 委托販賣 客主 廣信號 主 李到

仁川府龍里一〇一番地 張錫佑 電話五一五番

富川郡永宗面事務所 職員一同

仁川府龍里 仁川 龍洞藝妓券番 電話八二六番

仁川府仲町三丁目 米穀商 中央商會 鄭鶴雲 電話三四四番

永信汽船合名會社 代表社員 兪鎭植

仁川府外里 朝鮮料理 日月館 金鶴洙 電話六二三番

仁川府內里一六七番地 永信組 電話五二五番

仁川府外里一三七番地 物産客主 泰盛商會 主 鄭泰權

仁川府龍里九二番地 仁川穀物小賣業組合

仁川驛前 中華原鹽直輸入商 仁川鹽業組合 長電話二六一番

仁川府外里七七番地 鄭順澤

仁川府牛角里七番地 仁川釀造組合 電話七二四番

仁川府龍里 具昌祖 電話二二番

仁川府內里四街里角 大陸고무 萬世고무 靴 仁川總代理店 天恩商店

仁川府濱町三〇番地 光成商會 主 金奎東 電話長二七一番

仁川府內里 海陸物産 客主 綢緞布木貿易 三兄商會 電話八六〇番

仁川府新町四四番地 綢緞布木商 德應泰 電話九五五番

仁川府內里二一八番地 朝鮮藥酒釀造元 金暉寬

劉君星 材木店 仁川府濱町三二 電話一七番 / 精米所 仁川府花町一丁目 電話四一六番 / 自宅 仁川府寺町二五番

仁川府外里二三九番地 各種三巴耐久靴製造販賣 三成泰 主 李盛園 電話八八七 振替京二二五〇五番

仁川府栗木里五三番地 勸業所 出張所 港町穀物協會 電話二一七番

仁川府新町一六番地 米穀商 李興文 長電話一〇〇四番

仁川府外里一九八番地 物産客主 光成泰 金奎晃 電話長九一三番

仁川府港町 仁川米商組合 電話三七七番

仁川府內里一三一番地 朱命基 電話九四六番

仁川府內里一一四番地 物産客主 李仲天

仁川府支那町四八番地 米穀 原鹽 海陸物産 都散賣商 委托販賣 以友商店 金大鍊 鄭成鎬 電話八三番

仁川府龍里一四七番地 物産客主 公成泰 李相鶴 電話八二八番

仁川物產客主組合 電話四八番

仁川府龍里九一番地 金在潤

仁川府內里一〇番地 仁川信用組合 電話七一六番

仁川府內里二〇三番地 京城紡織會社 라사 石油會社 一手販賣 仁川代理店 仁川布木商組合 電話一九七 振替京二六八一番

仁川府龍里二三九番地 綢緞布木貿易 富潤商會 主 金斗基 電話七五八番

仁川府外里二三二番地 大濟醫院 金相圭

仁川府內里 고무靴 便利類 貿易商 友恭商店 安鍾弼 電話五八三番

仁川府松林里 崔承宇

仁川府外里二二一番地 中和堂乾材局

仁川府外里二三九番地 綢緞布木商 開豐商會 主 李珪鉉 電話七七〇番

仁川府內里 物産客主 綢緞布木 普信泰 普信商會 電話九四七番

仁川府龍岡町四九番地 三友釀造組合 電話一〇六六番

富川郡多朱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川郡文鶴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川郡南洞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川郡蘇萊面事務所 職員一同

仁川府花平里二七五番地 海陸物産 委托販賣 東信泰 主任 金東洙 主務 金淑輔 金日東

仁川府龍里二三九番地 金銀細工 各種電鍍 都散賣 求中 吳萬根

仁川府外里一九二番地 냉면 온면 국밥 장국 飲食店 主 金大得

별표고무신 仁川府外里九二番地 朴聖吉商店

仁川府外里二三八番地 英米洋服店 主 朴慶來

仁川府外里一六五番地 醸造元 新興醸造場 主 高敬禹

仁川府外里 李彰儀

仁川府外里六三番地 牛皮貿易商 永順號 李順日 長電話九四五番

仁川府龍里一七七番地 漆器美術品 製造販賣 螺鈿所 鄭昌範 朴仁洙

仁川府港町一丁目二番地 同泰成 主 邵舜章 長電話二〇五番

仁川驛前 ⊙廣信運輸組 金熺源商店 電話九四二番

仁川牛肉商組合

仁川府內里一八二番地 海陸物産 米穀原鹽 委托賣買 永昌商會 朴昌遠 電話長一六一番

江華郡南門通 染料製造 洋襪工場 沁信洋行

仁川府外里七七番地 布木商 李有明

仁川府栗木里五九番 金泰勳 長電話六二二番

上仁川驛前 鮮榮荷車組合仁川支部 支部長 柳泳錫

江華邑內 李泰鉉

仁川府支那町四五番地 原鹽直輸入 穀物委托商 同順公司 崔炳熙 長電話八七六番

朝鮮仁川府支那町四三番地 原鹽米穀直輸入商 代理行店 德聚昌 朱孟初 電話一〇二五番

仁川府內里二〇九番地 安永淳 電話八六三番

仁川府外里二二五ノ三 綢緞布木 貿易委托 都散賣商 大興商會 孫韓憲 吉龍周 長電話一四二番

富川郡富內面下里 朴容均

仁川府柳町三三番地 繩叺麻袋新古貿易商 鄭元基 電話八八六番

仁川府內里 物產客主 昌興泰 朴昌洙 朴昌熙 電話長六八七番

仁川府敷島町 朝鮮人貸座敷組合

仁川府支那町八 中華商務總會

仁川府寺町二四番地 金相俊

富川郡南洞面古棧里 吳在協

富川郡文鶴面玉蓮里 李泰永

仁川府內里二二番地 冷麵湯飯餅湯混飯業 萬成樓 主 崔乙星 電話八八四番

仁川府內里 朝鮮魚商小賣組合

仁川府外里二四〇番地 米穀商 金泰運 電話六七七番

仁川府寺町四番地一號 順昌精米所

仁川府外里一四四番地 米商運輸組

仁川府花平里二二四番地 魚商 鄭順澤

仁川府松林里二二五番地 孔麟植

仁川府內里一五一番地 物産客主 同盛泰

仁川府寺町三番地 福音洋服店

仁川府外里 金相勳 電話一五二番

仁川府金谷里一五番地 米穀商 趙仁奉

仁川府寺町五番地 冷麵商 寺町屋 主 禹錫圭 電話七六四番

仁川府外里九七番地 東興商會 金昌永 金聖麟 電話九五二番

仁川府外里八〇番地 布木商 吳正燮 電話一〇六五番

仁川府龍里一七五番地 永昌醫院 李枝應

仁川府龍里二三八番地 平壤理髮館 方寬道

仁川府外里二四〇番地 安榮고무商會 主 安基榮 電話三八三番

仁川府內里二〇九番地 綢緞布木商 東昌商會 金聖七 電話七八三番

仁川府內里二〇七番地 綢緞布木商 鄭文植

仁川府外里八〇番地 布木雜貨商 趙萬燮 電話四七八番

仁川府花町一丁目九一 海陸物産 委托販賣 秉昌號

仁川府內里一三六番地 李興善

仁川府寺町 米穀並麵子製造販賣 青松精米所 主 沈宜植 電話四八一番

仁川府內里六番地 物産客主 洪在範

仁川府外里二一七番地 魚菓商 梁元明

仁川府外里三一番地 李逢根

仁川府新町五六番地 物産客主 朴道行 電話三三一番

仁川府外里二二五番地 綢緞布木商 李昌文 電話四七六番

仁川府內里二〇九番地 魚菓物 木物 其他油菓 唐麵 製造販賣 林常津

和洋雜貨 洋靴 鮮靴 各種古物 大同고무 吳山고무 特約代理店 永興商店 主 金興植 本店仁川府內里一三四 支店仁川府寺町三

仁川府外里 兄弟工業所 鍮力鍍金鐵板細工 請業

仁川府花平里二九五 雜貨業 崔興淳 (電話八八五番)

仁川府內里一〇六番地 貿易及客主業 忠海社 金元經 電話九三六番

仁川府牛角里五番地 米穀商 金亨培

仁川府龍岡町七六番地 何吾醫院 康永句

仁川府龍岡町八二番地 米穀商 金仁成

仁川府桃町二二三ノ一 友助商會 仁川府花町一九三 和平商店 米穀外 雜貨商 李康洛

江華郡溫水市場 司法代書人 沈相哲 李康羲 金永赫

仁川府外里 天恩堂時計舖 金用雲

仁川府外里一七三番地 診察醫 雲谷醫院 柳源根

仁川府新町六五番地 各種皮物 死鳥鷄卵 海産物 販賣商 用聖商會 主 裵用根

仁川府內里二〇八番地 天信堂時計舖 主 金甲孫

仁川府萬谷里一四番地 綢緞布木商 金昌濟

仁川府內里一八六 冷麵 雪濃湯 湯飯 餅湯 自轉車配達 寶成樓 電話四六三番

仁川府寺町四 朝鮮理髮館 主 安七星

仁川府龍岡町八一番地 鮮英舍印刷所 主 李鐘潤

仁川府內里 海陸物産委托貿易商 相仁商會 主 金仁錫 電話長八七〇番 電略(ソウ)又ハ(イン)

仁川府外里 物産客主 順天號 主 玄惠映 電話三七六番

喪中欠禮 仁川府龍里一八四 沈宜淑 電話長三六三番

喪中欠禮 仁川府龍里九〇番地 禹台鼎 電話六八二番

病中欠禮 仁川旅中 吳成煥